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통과... '한국판 NASA' 5월에 들어선다

이달부터 항우연 등 소속기관 이관화 절차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항공우주 업계 숙원인 '한국판 미 우주항공국(NASA)'이 오는 5월 개칭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지난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안전조정위원회 회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소속기관화 등을 놓고 논의가 지속됐다.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회를 연달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개칭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 법안 이송 및 공포,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인력·예산·임시 청사 확보 등의 작업을 거치면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우주정책 범위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되면서 종합 지휘할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을 담았다. 특히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해 책정하도록 하는 등 혜택을 부여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부터 예산, 조직 확보 등이 이뤄지면 개칭까지 이뤄진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경남 사천에 들어서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 전반을 지휘하고,

민간우주경제 시대를 주도한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대전, 전남, 경남 3개 지역에 들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능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달 법안 정부 이송과 하순공포, 시행령 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우주청을 개칭할 수 있다. 예비비로 예산과 장원을 확보하고, 경남 사천에 부지를 확보해 개청을 준비해야 한다. 법률안에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명시된 만큼 5월 개칭이 목표다.

이번 달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우송정보대, 영국 2개 대학으로 해외교육 파견

국제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영국 국가자격취득 및 이수 위해 영국 유학



우송정보대학(총장 이대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영국 본머스 앤 풀 컬리지(Bournemouth & Poole College) 대학과 버턴 앤 사우스 더비셔 대학(Burton and South Derbyshire College)으로 뷰티디자인학과 및 K-미이스터스쿨(K-뷰티 전공) 재학생 총 12명을 영국으로 6개월간 해외교육 파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교육에 참여하는 12명의 학생들 중에서 10명은 VTCT의 Level 2 in Hairdressing 헤어디자인 영국국가 자격증을,

1명은 City & Guilds의 Level 3 in Hair and Media Make-up 메이크업 영국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며, 1명은 City & Guilds의 Level 3 in Hairdressing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우송정보대학은 2013년부터 영국 본머스 앤 풀 컬리지와 국제협력 프로그램 공동운영에 관한 협정을 맺고 매년 우수한 학생들을 영국에 파견하였으며, 글로벌 뷰티 인재 육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버턴 앤 사우스 더비셔 대학과도 학점교류

협약을 맺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의 가장 오래되고 공신력 있는 직업교육인증기관(City & Guilds)과 VTCT의 영국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세계 120여 개국에서 인정받아 글로벌 뷰티 인재 육성의 성장발판이 되고 있다.

뷰티디자인학과 정지영 학부장과 K-미이스터스쿨 K-뷰티전공 정소정 교수는 영국 직업교육기관(City & Guilds)의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여 교육전반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는 4주간의 단기 해외파견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신설 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뷰티디자인 코스는 뷰티디자인학과 K-미이스터스쿨 K-뷰티전공에 입학한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학년 동안 교내에서 집중식 영어 학습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내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 2학년 1학기에 영국유학을 통하여 국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송정보대학 뷰티디자인학과 학부장 정지영 교수는 "가장 빨리 한국 대표명장으로 성장시키는 우송정보대학은 세계 유수의 직업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 글로벌 명장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뷰티디자인 코스를 강화해 뷰티 국제 전문가를 보다 많이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세종시, "미래신산업 육성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



또한 '사이버보안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신산업 분야 전환과 확장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산업도 다각화 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위해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전력을 다. 또 '타깃기업'의 선제적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전략TF'도 운영한다.

이율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상반기 중 착공하고 300억 원 규모의 '미래전략펀드'를 조성 투자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한다. 우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로컬브랜드 거리'를 조성하고 '세종 라이온 타운'을 운영, 전주기적 창업교육을 지원해 소상공인 양성에도 힘쓴다.

이율러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100억원 늘린 3500억원을 운용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

또 세종전통시장과 조치원 중심가로 일원을 특색있는 대표 상권으로 조성키 위해 5년간 60억원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농업인 지원 강화와 경영 안전망 구축 ▲지역 먹거리 확대, 여름 대표 북송이축제 육성 ▲시민 공감 동물복지, 청정축산 환경 조성 등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남궁호 국장은 "2024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제4기 세종시정과 경제산업국 주요업무에 대해 세종시민을 비롯한 기업인, 소상공인,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2024년도 국민연금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불기변동률

을 반영하는데,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된다.

이율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오른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오른 53만 56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른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

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instagram 인스타 @c.lab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따른 / 성향, 성격 등



문의)
네이버톡톡 / 인스타 DM
메일 - clabclab_10@naver.com
문자, 전화 - 070.8098.1834

“현 출산율 지속...50년 후 2,500만 명대 축소”

출산율 회복 위해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 모색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 인구감소 저지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출산율과 인구가동율이 지속된다면 시나리오(중위동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50년 후인 2073년 총인구는 2023년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52만 명에 이르고, 100년 후 인구는 2123년에는 현재 인구의 14.8% 수준인 759만 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 인구

비율은 2023년 18.9%에서 2073년 45.6%로 26.7%p 상승하고, 총부양비도 2023년 42.7에서 107.3으로 100을 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총인구 감소 추세의 상황 속에서도 2073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현재보다 10.4%p 높아지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50.9%)

2,613.1만 명이지만, 2073년 수도권 인구는 1,588만 명으로 감소해 수도권 집중률은 60.8%(10.4%p 상승)에 이를 것이다.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경상북도로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1%인 53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라남도도 26%인 47.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시나리오에서 229개 시군

구 중 5천 명 이하 인구 규모를 갖는 시군구는 현재 0개에서 2073년에 45개 이상, 2123년에는 126개 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까지 합계출산율 2.1명까지 선형적으로 회복하면서 연간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태어날 때 2070년 이후 인구 3,000만 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을 보고서는 주문했다. 이정복기자



유성구의회 송봉식 의장, 주요 기관방문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알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봉식 의장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8일 송봉식 의장은 유성지역협력센터(6.25참전용사, 월남전참전자와 제1보훈회관(삼이군경회, 전몰미망인,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회)을 시작으로 고엽제전우회와 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하였으며, 9일에는 유성경찰서, 유성소방서, 노인회유성지회, 유성노인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기관방문은 새해를 맞아 관내 유관기관을 방문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현안 청취와 지역발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아산 ‘갑’ 총선 대비 인재 영입

신임 청년위원장 선임 등 총선 앞두고 조직 구성에 박차



국민의힘 아산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7일 진행

한 당협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청년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새로이 임명된 박병선 신임 청년위원장은 “4월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청년위원장을 맡게 돼 영광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아산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우리 당이 청년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은 “당의 젊은 인재 영입과 홍보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청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4 총선 승리를 위해 청년층의 지지가 중요한 만큼, 박병선 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리랑주기자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청주 상당구)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혼잡·교통유도경비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경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도 공사감리자를 선정토록 추가해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

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 공사 감리공백을 해소해 국민안전에 더 단단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민생 최우선으로 입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비업법 개정안(대안)」은 경비업법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 신설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 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동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했다. 이에 혼잡·교통유도경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육성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공사장 또는 행사장 등 혼잡지역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현행법은 혼잡교통유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을 받지 않은 교통유도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우택 부의장은 “향후 혼잡교통유도원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을 통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일상의 시민 안전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김성구기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여권 신장과 양성평등은 시대적 시명”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9일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된 ‘2024 대전여성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대전여협 정영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내빈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신년교례회를 시작으로 올해도 대전여협이 대전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호소력 있게 대변해 주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의 확산을 뒷받침 하는 역할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박영순 의원 ‘지식재산 우수 의정활동상’ 수상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대한변리사회로부터 2023년 지식재산분야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9일 오전 지식재산 보호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박영순 의원에게 “2023년 지식재산분야 우수 의정활동상”을 시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매년 지식재산분야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

원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여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의정활동, IP(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관련 활동 및 정책관심도, 언론보도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박영순 의원이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지식재산권제도 주무부처인 특허청이 특정 업체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 비리를 알면서도 거액(125억 원)의 계약을 체결해 국가 계약법을 위반한 것을 밝혀내고, 수사를 이끌어 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중국에서 수천건에 달하는 K-브랜드 등 우리 기업 상표 무단 선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분청 대응은 지연이 미비한 것을 지적해 ‘법부처 대응 과제’로 이끌어내는 등 지식재산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과 특허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신 대한변리사회에 감사 드린다”며 “지식재산에 대한 비리는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콘텐츠, 기술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행복청 치안 및 재난 대응시설 확충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도시발전의 따라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치안 및 재난대비 공공청사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준공예정인 어진동(1-5)의 청사지구대는 도담·어진·나성·해밀동 일대를 관할하는 신설 지구대이다. 앞으로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집회와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치안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강동(5-1)에 들어서는 세종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경찰관서 지휘, 교육 및 훈련 등 경찰력 운용을 위한 공간으로,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한 행복도시의 치안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내년 착공하여 이듬해인 2026년 준공이 목표다. 행복청은 건립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테러방지·인명구조 등 업무수행과 특수훈련을 위한 세종경찰청 공대도급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7년 문을 연다. 고운동(1-1)에 건립되는 이곳은 각종 대테러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계기관 합동훈련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대응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방청의 업무·훈련공간인 국가재난대응시설은 화재나 구조물 붕괴 등 대형 재난발생 시 실시간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휘 및 통제하는 곳이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다장동(2-1)에 건립이 한창이다. 세종=김태선기자

송인석 의원, 천동초등학교 현안 해결 위해 적극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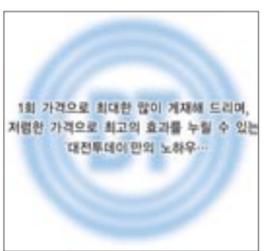
천동초교 애로사항 적극 청취하여 학교 시설 개선 앞장서



대전시의회 송인석(국민의힘, 동구1) 의원은 8일 대전천동초등학교(이하 천동초교)를 방문하여 천동초등학교 관계자, 천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및 시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섰다. 송인석 의원은 천동초교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노후화된 운동장 스탠드 보수, 축구장 인조잔디 개선과 안전장 문제 등이 있는 학

교 창고 철거 등 학교 시설 개선사항에 대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시 교육청에 실행 과외와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다. 송인석 의원은 “올 해 하반기 천동3구역 리더스시티 아파트에 약 3,400여 세대 입주율을 앞두고 있어 통학구역인 천동초교의 시설 문제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많다”며, “천동초교, 시 교육청과 학교 시설 문제 개선에 대해 적극 협

의하여 천동초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인석 의원은 지난해 대전시의원 당선 후 대전 천동중학교(가칭) 설립을 위해 시정질문, 정책토론회 개최, 정치권과 적극적인 공조에 앞장서 지난해 7월 대전 천동중학교(가칭)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지역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총선 불출마하라”

“개인의 욕심으로 국민들의 믿음 저버렸다”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가 9일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대전 유성구를 국회의원에 출마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가 9일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대전 유성구를 국회의원에 출마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지난 12월 3일 개인의 욕망을 절저히 숨긴 채 오전 대전 유성구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욕심에 의한 탈당과 국민의 힘에 입당한 이상민 국회의원은 총선 불출마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원은 지난 12월 3일 개인의 욕망을 절저히 숨긴 채

국선 D-90일, 답페이크 영상 등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대선·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제8)]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월)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1월 11일(목)부터 중앙선관위는 AI강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며, 대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4명, 세종·충남선관위는 각 2명 지정하여 사생활 침해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연주소·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것이더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나타내는 광고 등금지(법 제93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법 제53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공·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월)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후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권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선거사무관(계)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법 제60조)]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상,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명령정보시스템(http://lawncg.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정환기자



“교권보호 5법 현장 안착하도록 최선”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신년기자회견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올해 9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 1회의실에서 2024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올해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김 교육감은 지난해 도민들이 보내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원과 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선생님과 교육공동체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은 교원이 정당히 가르칠 권리와 학생이 제대로 배울 권리를 지키는 단단한 매듭이 되어 학교 현장을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이끌 것”이라며, “충남교육은 교권보호 5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평가 최고등급 ▲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국무총리기관표창 ▲ 직업계고 전공실부 능력경진대회 전국최고 성적 ▲ 「2023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계획서 평가」전 분야 최고등급(SA) ▲ 지방교육재정 분석 최우수 교육청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등 충남교육청의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 인·수·레(인공지능교육 수업활동 레시피)를 개발하여 디지털 전환교육의 기반을 조성 ▲ ‘교육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하여 학생들 학습이력 관리 ▲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 및 학습결손 해소 ▲ 충남형 IB학교를 운영하여 미래형 평가체제 구축 ▲ 전국 최초 변호사 동행 서비스 시행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사업선택제 전면 시행으로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통한 교육활동의 질 제고 ▲ ‘다문화 소리편’으로 다문화

학생의 수업 지원 ▲ 취업진로지도 시스템인 ‘직업계고 채용 119 앱’을 개발·운영하여 개인 맞춤형 직업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등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왔음을 피력했다.

충남교육청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9대 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을 완성한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조성하며,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교육 체험센터’도 15개 시군에 구축을 완료하여 인공지능교육 중심 융합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을 완성할 계획이다.

둘째, 학교를 미래교육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이미 2016년부터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으며, 학교공간 혁신을 위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2023년 7개교 준공했고, 2024년엔 23개교를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냉난방기 교체, 노후 화장실 개선, LED등 교체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 내진보강과 석면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셋째,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화시설을 모든 시군에 설립한다.

올해 천안에는 (가칭)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를, 서산은 (가칭)인지초복합문화센터, 홍성군에는 (가칭)홍성군학교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15개 시군에 학교복합

화시설을 1개 이상 설립할 예정이다.

넷째,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수학여행비는 1인당 초등학교생 16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교생 3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다지녀 학생은 초등학교생 9만 6천 원, 중학생 12만 원, 고등학교생 18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균등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다지녀 학생은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다섯째, 미래역량을 갖춘 직업인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한다.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과 신산업 분야 기술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2025년 개소를 목표로 천안에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는 진로직업 체험교육, 미래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교육,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 대상 연수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충남 직업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생태시민교육을 더 강화한다.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3·6·5 운동을 학교에 안착시켜 왔다. 지구온난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자원의 과다 소비에 대비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생태시민을 양성하는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곱째, 학생과 교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학생과 교원을 지원하며,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진단-상담-치료-회복까지 통합 지원하겠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 조력과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하는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강화한다.

여덟째, 인문·예술·체육교육을 통해 인성역량을 키우겠다.

유·초·중·고 학생들 대상인 ‘차곡차곡 학생 책 출판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연극제, 학생단편영화제, 청소년문학상, 사제동행 풍물놀이 한마당 등 인문·예술 활동과 ‘1교 1예술 동아리’,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등 인문·예술 교육도 확대하며, 가상현실·증강현실이 접목된 ‘건강체력교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홉째,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실현하겠다.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증가하여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 여건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문화·체육 등 지역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를 구축하는 공모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원의 교육권을 지키고, 미래교육의 터를 다지고 반석을 만들어 가는 사업은 중단없이 꾸준히 추진하겠다”라며,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충남미래교육’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지극한 정성에서 시작하고 충남의 모든 교직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와 교실에서 정성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김정환기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확대

市, 마인드병원 추가 지정으로 1개소 → 2개소... 치료보호비 예산도 4배 증액

대전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4배 증액하기로 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대전시는 2009년부터 참다남 병원(대흥동)을 치료보호기관으

로 지정하여 마약류중독자들에게 치료 보호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와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내 치료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인드병원(둔산동에 2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 1,000만 원이던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 사업 예산을 2024년 4,000만 원으로 증액(국비 50%, 시비 50%)하여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마약류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치료보호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적 치료보호가 있는데, 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25개 치료 보호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전 주소지의 환자가 대전지역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확대됐다"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더 관심을 두고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동 정 ●

주민자치협의회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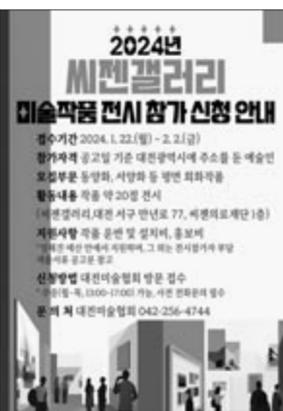
이동한 부구청장(중구청장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6시 30분 중구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중구주민자치협의회 총회' 참석.

구청장등 연두방문



최충규 대덕구청장= 10일 오전 10시 20분 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구청장 연두방문에 참석.

씨젠갤러리 지역예술인 미술작품 전시 작가 공모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씨젠갤러리 지역예술인 미술작품 전시'에 참여할 9명의 작가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갤러리가 위치한 씨젠의료재단 대전충청검사센터는 중부권 최고 수준의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으로 작년 7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씨젠의료재단,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와 협약을 맺어 문화예술 인프라가 갖춰진 민선 중에 예술인 창작과 소통을 위한 허브 공간으로 조성했다.

씨젠갤러리는 월별 지역작가들의 개인전으로 진행되며, 4월부터 전시에 참여할 지역 예술작가를 공모 신청받는다. 선정된 작가는 갤러리에 작품전시 기회를 제공되며, 작품 운반 설치비와 홍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지역예술인 초대작가전이 진행되고 있다.

공모 자격은 대전광역시에 주소권을 둔 예술인이며, 모집 부문은 한국화, 서양화, 등 회화 분야이다. 제출 서류는 대관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 포함), 전시계획서, 포트폴리오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민선동 문화예술 허브 구축은 민선 8기 주민과의 약속 사업이다"라며 "씨젠갤러리 작품전시를 통해 지역예술인 작품활동 지원과 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무료 법률 서비스 '법률홈닥터' 올해도 계속

동구, 11년 연속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11년 연속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 2024년에도 취약계층 무료 법률 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돼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

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매년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배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동구는 2014년 이후 계속해서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돼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으로,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042-251-6229) 또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법률홈닥터 사업 홍보를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청년 공간 방문 상담, 구 홈페이지 무료 상담 등 연 1,000여 건 이상의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해 구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태선 기자

중앙로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 운영 준비절차 착수

관계기관 정례회의 구성·1월 중 사용자 감정평가 실시

대전시는 2024년 7월 6일부터 중앙로지하도상가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민간)에서 관리·운영해 왔으나 올해 7월 5일자로 사용 협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협약 만료 후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원활한 관리 전환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내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고 인계인수 관련 업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중앙로지하도상가 관계기관(대전시·공단·운영위원회) 대표단으로 구성된 정례회의를 구성하여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전달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존의 점포

사용허가 및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 중앙로지하도상가를 일방 변경입찰할 예정임을 통보했고 2024년 7월 6일부터 점포 사용허가자 선정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점포 사용자 감정평가를 올해 1월 중 착수할 예정임을 알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5월 입찰 절차를 완료한 역전지하도상가 사례를 예로 들며 "올해 중앙로지하도상가 공개경쟁입찰 및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관리 전환을 통해 시민 누구나 공유재산인 중앙로지하도상가 내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점포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 지하도상가 운영체계 일원화, 효율적인 원스톱 통합 관리체계 구축, 투명한 시설 관리·운영 등 시설관리공단 위·수탁에 따른 많은 장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NH농협생명 대전총국, 2024년 대전 1호 가입 감사행사 실시

유성농협이 2024년 대전지역 농축협 내 NH농협생명 1호로 가입했다.

NH농협생명 대전총국 박장순 총국장(오른쪽)은 지난 8일 오후 1호 계약을 추진해 준 유성농협 류광서 조합장(왼쪽)과 추진직원인 신영순 부지점장(가운데)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농협생명의 2024년 주요 추진사항 및 지

원계획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갑진년 새해 첫 문을 연 대전지역 농협생명이 1호 계약은 유성농협 유성연천역지점에서 2일 오전 9시20분에 이뤄졌으며, 해당 상품은 'The스마트한NH중신보험'으로 60대 남성고객이 가입했다.

'The스마트한NH중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매년 3% 증액되어



최대 160%까지 늘어나고, 노후자금설계환원특약 등을 계약자적립액을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장과 노후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중신보험으로 2022년 첫 출시 이후 매년 가장 많은 고객들이 가입하는 농협생명 베스트셀러 상품이다.

금년 1월 새롭게 개정되며 보험료 납입완료 후 플러스지원금 적립, 환급률 인상과 가입나이도 기존 72세에서 75세까지 늘어나

고객 혜택을 더욱 높였다. 또한 계약자는 물론 계약자 가족에게도 농협상조 장례서비스상품 이용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박장순 총국장은 "농협생명 발전위원회 농축협인 유성농협에서 2024년 1호 가입이 이루어져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축협과 농협인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협생명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대전과기대 간호학과 학생 4명, 대회 상금 46만5000원 기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9일 대회 상금 46만5000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욱)에 기탁했다. (왼쪽부터) 대전모금회 이은영 사무처장, 대전과기대 간호학과 서기순 교수, 이혜진, 유서영, 신지현, 복성준 학생들이 대전모금회 사무실에서 상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 완료

대덕구, 부정 급여 113건 전액 환수 조치 등 재정 누수 막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재고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실시한 하반기 확인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2개 보장을 받는 3273가구를 대상으로 160여 개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를 점검하고, 현지 확인 조사 진행했다.

그 결과 보장 중지 392건, 급여 변동 907건 등을 처리했으며, 소득신고 지연, 누락 등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113건, 7천133만 4000원을 확인, 전액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했다.

특히 구는 급여 감소 및 보장 중지 결정으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예방하고자 208가구를 대상으로 사재관리,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연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섰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부적합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를 병행, 480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최충규 대덕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속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재원의 누수를 막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유성구 2024 상반기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2개 분야 12개 사업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상반기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구는 올해 공공서비스 업무 지원, 행정정보화 및 환경정비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35명을 모집하며 참여 자격은 1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세대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8세 이상 유성구 주민이다.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선발된 주민은 3월부터 6월까지 주 20~40시간 근무하며, 시급 9,860원(2024년 최저임금), 일 5

시간 기준 월 150여만 원의 급여와 4대 보험 혜택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042-611-2212)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구청장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이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취약계층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중구 "일자리 확충에 최선"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2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10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권을 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근무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주 5일 근무로 1일 근무 시간은 사업장별로 다르다. 다만,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 세부 사업 1개에 대해 서면 지원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9

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 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2월 16일(현동 가능)에 우선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이번 공공일자리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구직자분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일자리정책과(☎042-606-7243)로 문의하거나, 중구청 누리집(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덕구, 2024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 공모사업 선정

대덕구(대덕구청장 최충규)는 '2024년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에 순회 사서를 파견해 전문성을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기반을

구축을 위한 것이다.

대덕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2명의 순회 사서를 채용, 오는 11월까지 대덕구 지역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파견할 계획이다.

순회 사서는 도서 선정·정리·대출 서비스,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봉사자 대상 실무교육 등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순회 사서 지원사업 선정으로 도서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 주민들의 독서, 문화생활 향유에 지역 인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 동 정 ●●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김대흠 충남도지사는 10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 참석.

하반기 모범공무원증 전수식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10일 오후 2시 30분 진로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하반기 모범공무원증 전수식에 참석.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최재구 예산군수는 10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떡국키트 나눔행사



이용록 홍성군수는 10일 오후 1시 30분 홍성군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리는 새해 맞이 행복 담은 떡국키트 나눔행사에 참석.

세종시 도담동 경로당 16곳

한파와 폭설 대비 안전 점검



세종시 도담동(동장 이종엽)이 겨울철 한파와 폭설을 대비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도담동 경로당 16곳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한파 시 경로당이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로당 내 난방기 작동 상태를 살피고 소화기 작동 여부 등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또 어르신들에게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김이현 도담마을 16·17단지 경로당 회장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방문해 꼼꼼히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추위를 피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엽 동장은 "한파와 폭설로 어르신들의 안전이 걱정돼 경로당을 방문했다"며 "도담동 구석구석을 찾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마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

지난해 '홍성' 찾은 관광객 전년 대비 30% 증가

“매력적인 관광자원 구축 위해 최선”



홍성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관광 지식 정보 시스템(https://know.tour.go.kr)에 등록된 2023년 홍성군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수는 2022년 주요 관광지별 입장객 수 312,772명에서 89,577명 증가한 402,349명을 기록했다.

공원에 개최한 남당항 대하축제 기간 중 방문객 수가 약 13만명을 기록했다.

군에 따르면 2024년에는 서부해안 관광의 중심인 남당항 네트워크, 서해의 관문인 홍주읍성, 홍주성지순례길이 신규 관광지점으로 등록됨에 따라 홍성군의 주요 관광지별 입장객 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홍성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인기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민선 8기 홍성군 대표 관광브랜드 육성이 라는 관광정책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라며 "홍성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세종형 '스마트도시' 시민과 함께 만든다

오는 26일까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민참여단 모집

세종시(시장 최민희)가 지역이 안고 있는 각종 도시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계획'에 참여할 세종시민을 모집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 리빙랩 활동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고 이들과 지역 내 도시문제 도출, 개선, 해결방안 등 발굴에 나선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현재 세종시 맞춤형 특화 전략과 미래

2-3월 총 3회 열리는 리빙랩에 참여해 분야별·생활권별 주요 도시문제 파악,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토론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리빙랩 참여자에게는 활동비로 3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는 전화(070-5228-1075) 접수 또는 시 누리집에 게재된 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이번 리빙랩 활동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현재 수립 중인 스마트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태선 기자

충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활성화 모색

오는 10일부터 4일간 도내 12곳 현장방문... 운영 현황 살펴

충남도는 오는 10~11일, 17~18일 4일간 도내 6개 시군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본격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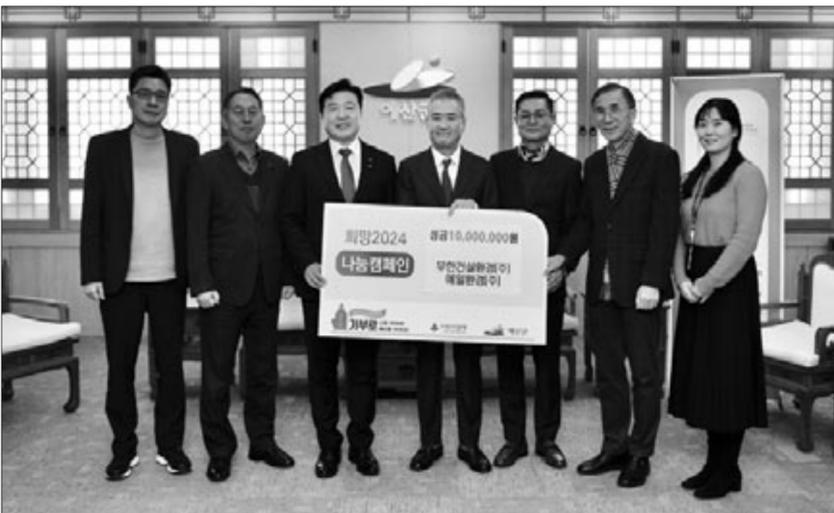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각 시설의 운영 형태를 파악하고 종사자 등과의 소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체험홈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무한건설환경·예일환경, 예산군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지역민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 기대



예산군은 지난 8일 관내 건설 폐기물 중간업체인 무한 건설 환경과 예일 환경에서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날 성금기탁식에는 최재구 예산군수와 심상학 무한건설 환경 대표, 조성수 예일 환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탁된 성금은 충남 사회 복지공동 모금회에 전달돼 군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의료·학습 지원, 아동 결식 예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무한 건설 환경과 예일 환경 관계자는 "이번 기부가 지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재화 기자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예산군, 농업인 작목별 재배 기술 향상 및 기술보급

예산군 농업 기술 센터는 농업인의 작목별 재배 기술 향상 및 기술보급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실용 교육은 1월 8일 사과반을 시작으로 2월 19일까지 배, 고추, 배, 스마트 농업, 여성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실용 교육은 새해 영농계획 수립,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 및 농업 교육으로 농업인에게 새해의 영농 수행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 일정은 총 16회에 걸쳐 1390명을 대상으로 농업 기술 센터, 읍면 행정 복지 센터 회의

실, 복지 회관 등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공기 직불제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농업 기술 센터 관계자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통해 필요한 농업 정보를 습득하고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농업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교육 일정과 내용은 농업 기술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력 육성팀에 문의하면 된다.

예산 = 박재화 기자



(주)동광디테크, 희망2024나눔캠페인 500만원 성금 전달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전기ç소방전문업체 주식회사 동광디테크 박정화 전무이사(오른쪽)가 9일 오전 10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희망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희망성금은 세종시북당이기족봉사단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홍성군 재활용품 선별로 만든다

쓰레기 선별로 재활용품 1,545톤 판매, 8억5천만원 수익



저탄소 녹색성장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홍성군이 2023년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1,545톤의 판매수익 5억 3,100만원과 쓰레기 위탁처리비용 절감액 3억 2,400만원 등을 통해 총 8억 5,500만원의 수익 달성과 환경보호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재활용품 매각 수익은 품목별로 플라스틱류 2억 5,300만원 ▲인코트(스티로폼) 1억 2,500만 원 ▲캔·고철류 7,500만원 ▲기타 7,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군은 행복을 중계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내 공공시설 선별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자체 분리·선별하고 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은 병류·캔류·플라스틱류·폐지 등을 선별 분리·포장하는 시설로 압축기, 스티로폼 감응기, 폐지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하루 생활폐기물 15톤을 처리할 수 있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공공재활용 선별 시설 운영으로 탄소 배출 감소 및 환경보호는 물론, 군 재정 수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재활용쓰레기를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우리/동네



송재열 천안시 동남구청장

취임 축하 화분 30여개 기부

천안시 동남구는 9일 송재열 구청장이 제18대 동남구청장 취임 축하 화분 30여 개를 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축화 화분은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잠아름다우집,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전달됐으며 각 기관을 방문하는 이 용객들을 위한 환경 미화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송재열 구청장은 "취임 축하를 위해 보내주시는 화분을 지역 사회에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한살림천안아산, 천안시 문성동·원성2동에

유기농 배로 따뜻한 나눔 실천

한살림 천안아산 농산물위원회(위원장 강환실)가 9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유기농 배(3.5kg) 2박스씩을 각각 천안시 문성동(동장 정은숙)과 원성2동(동장 김성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살림은 생명농업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운동을 펼치는 단체다.

강환실 위원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자 조합원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숙 문성동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한살림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성경 원성2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도움을 주신 한살림 천안아산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후원받은 농산물은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이른 시일 안에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이운형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

취약계층 위해 1500만원 기부

천안시복지재단은 9일 이운형 이사장이 천안시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운형 이사장은 천안시복지재단 설립과 함께 재단의 이 사적을 수행하면서 정기 후원과 물품 기부 등 지속적인 나눔에 동참해 왔다.

이운형 이사장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천안지역의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덕면 행복기움지원단 '독거어르신 영양지원 도우미' 추진 광덕면 행복기움지원단(단장 박복순)은 9일 '독거어르신 영양지원 도우미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달은 기존 377구에서 279구 추가 선정해 총 397구에 달감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 생활을 지원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이용자 해마다 증가

천안시, 최근 3년간 남성 육아 휴직자 총 768명(2784건)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이용한 남성 근로자는 768명(2,7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 2021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하반기 이용자 149명(471건)에서 2022년 265명(1,082건), 지난해 354명

(1,23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천안지역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2년 기준 24.2%로 나타났다. 남성 휴직자는 649명으로 전년 동기 466명에 비해 39.2% 증가했다.

특히 2022년 천안지역 남성 휴직자 비율은 전국 육아휴직자 중 남성 휴직자 비율 23.94%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

대하고 일·가정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남성육아휴직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장려금 지원 신청은 육아휴직 시

작일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천안시청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외에도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문화·의식·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5년간 2541억원 투입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미래를 여는 천안' 조성... 78개 주요 과제 추진

천안시는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미래를 여는 천안' 조성을 위해 제2차 청년정책 5개년(2024-2028년)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28년까지 5년간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4대 전략, 78개 사업에 2,541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취·창업 역량 제고 지원 ▲일 경험 지원을 통한 진로 결

정 및 직무역량 제고 ▲일자리 진입·정착 지원 ▲청년농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등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을 위해서는 ▲학비 부담 경감으로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다양한 배움의 기회 보장을 위한 6개 사업을 제시했으며, 주거 지원 방안으로 ▲청년주택 보급 및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안정적인 주거 보장 등 8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의 복지·문화를 위해서 ▲취약청년의 정착·자립 ▲정신건강

관리 ▲독서문화 향유 ▲청년문화예술인 창작활동 등 22개 사업에 주력한다.

청년의 참여·권리 확대를 위해 ▲정책 참여·결정 기회 다양화 ▲정책 전달·추진체계 운영 ▲청년의 교류 지원 등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역과 천안 청년실태조사(2022년), 충남 청년실태조사(2023년) 결과와 반영됐다.

시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고 지속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신규사업뿐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성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 충남도와 연계할 수 있는 청년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은 20만 명의 청년이 머무는 젊은 도시로, 청년정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 선언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천안을 일등도시로 만들겠다"



말했다.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21세기 선도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과 충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어르신 인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충남형 선도적 기본복지 대표 정책인 '꿈바치'의 전국화, ▲동일급, 주4일 근무시대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양 (전)지사는 "천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주도할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천안지역 발전 방안으로 ▲GTJ-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성환 종축장의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 단지' 조기 개발,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제3관악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 지방청장 조지 조성,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점관 연장, ▲천안시 외곽순환

도로망 조기 확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다 함께 잘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 여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도전하겠다. 마침내 이루어 내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저 양승조의 힘과 용기가 되어 달라"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출마 기자회견 후 곧바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승조 국회의원 (천안(을))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국무투리가 맡게 되었다.

천안=이정복기자

케이엠 에스테틱, 천안시 드림스타트 아동위해 500만원 기탁



케이엠 에스테틱 (대표 이미연)이 9일 천안시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기부금 500만 원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이 이운형)에 기탁했다.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천안시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중 질병, 장애 등으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종으로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미연 대표는 "이번 후원회 취약계층 아동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일일에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분께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입산부 세대에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북중, 모두가 특별해 더욱 빛난 졸업장 수여식 실시



석하지 못하고, 줌(ZOOM) 졸업식, 교실에서 간소화된 졸업장 수여식이 이루어져 안타까운 해를 보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부채 특별했다. 졸업장 수여식에 많은 학부모(보호자),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지역위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없고 안전한 제7회 졸업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특히, 졸업 행사 리플릿(내장)을 한국어와 러시아로 구별하여 학부모(보호자)님께 안내하였으며, 학교장의 축사와 사은편지를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를 통해 동시통역함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다문화 정책학교의 특별한 졸업장 수여식이 되었다.

졸업식은 선생님들의 졸업 축하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꽃길만 걸으라는 의미로 만든 레드카펫 사이로 학생들의 당당한 걸음이 이어졌다. 또한, 축하공연과 3년간의 졸업영상은 학생들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교장이 공규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수여하는 졸업장은 모두에게 출발선이 평등한 삶을 응원하며, 모두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졸업장 수여식은 어느 해보다 천안 북중학교 졸업생들 한 명 한 명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었다.

천안=이정복기자

통정
2024 읍면동 방문

박상돈 천안시장 = 10일 오전 10시 동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2시 목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리는 2024 읍면동 방문에 참석.



이명열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본부장 이명열)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천안시 발주 건축공사 주요 현장을 방문해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명열 본부장은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중앙도서관 새단장 공사, 제2열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총 17개 건축공사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또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내실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와 동시에 공사 현장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명열 본부장은 "상반기 준공 예정 건축공사 현장은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및 품질 점검을 수시로 시행해 시 발주공사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 김정은 교수 K-Medi 융합인재 양성 지원사업 선정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9일 피부과 김정은 교수 <신자> 보 건복지부가 지원하는 'K-Medi 융합인재 지원 사업(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K-Medi 융합인재지원사업은 40세 미만 의사로 학과 양성 사업으로 1년간 총 1억 4,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김 교수 연구는 '주사(Rosacea)에서 JAK-STAT 신호전달경로의 역할 규명 및 신약 재창출을 통한 JAK 억제제의 치료효과 검증' 세분 내 생물학적 반응과 발달을 조절하는 JAK-STAT 신호전달 경로를 분석해 난치성 피부질환인 주사의 발병 기전을 밝히고 치료제를 개발한다.

JAK(야누스키나제) 억제제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최신 약품이다. 기존 치료제에 비해 효과가 높고 부작용은 적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신중한 분석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김 교수는 올해 하반기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UCSD)에 초청 교수진으로 연수를 다녀올 계획이다.

김 교수는 "주사 치료는 아직 명확한 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예방과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분야"라며 "JAK억제제의 효과 검증을 통해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보령해경, 갑진년 새해 첫 사람나눔 헌혈행사 참여 보령해양경찰서(김종인 서장)는 오늘 9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함께 24년도 첫 단체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에는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루어졌다.



예산소방서, 인사발령에 따른 임용신고 및 환영식 예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8일 소방서 별관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정기인사이동에 따른 임용대상자인 사발령 신고식을 가졌다. 신고식은 김성찬 서장과 각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발령자(전임·전보자) 총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임용장 수여와 환영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보령소방서, 2024년 상반기 인사발령자 사령장 교부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지난 8일 오전 9시 보령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인사발령자 48명에 대한 사령장 교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양소방서, 겨울철 공사장 내 용단·용접작업 시

공사장 용접·불티 주의 당부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가 겨울철 공사장 내 용단·용접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공사장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작업 등 불꽃 작업과 난방을 위한 화기 취급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관계인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용접작업 시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 비치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 ▲작업 후 작업장 주변 잔여 불씨 확인 등 안전수칙 준수 ▲개인 안전보호장비 착용 철저 등이다.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은 "부주의로 인한 불씨가 곁집을 수 있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 근로자와 관계인은 안전수칙 등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소방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충남 최근 5년간(18년~22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42건으로, 가해자의 95%가 주취자로 집계 되었으며, 아산 관내에서는 5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있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형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지원 심리치료 및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권혁정 재난대응과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대원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된다. '구급대원들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함량 부풀려 과장광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 정확히 제공하도록 교육 및 홍보 강화 요청

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일부 제품이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결과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고형제 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분해도 시험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의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한 수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량을 잘못 표기한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블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과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인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59개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중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

현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5개 제품은 허위·과장 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개 제품은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업자 59곳 중에서 54곳은 시정 권고에 따라 부당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다만 이번에 실시한 글루타치온 식품 광고 실태 조사는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조치 대상은 에스더몰의 ‘드로운 매거진’ 콘텐츠로, 이번 소비자원 조사

대상인 ‘여에스더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5X’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광고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 게시 광고는 이번 조사에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적발된 59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달간 1004명 검거

8명 구속...범죄수익금 6억5천만원 몰수·추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카드 결제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이른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00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들 중 8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금 6억5000만원을 몰수·추징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단속 기간 검거 인원은 미운영 기간(작년 1~7월·226명)과 비교해 4배 넘게 증가했다.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규모도 16배 이상 늘었다.

일반적으로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한다. 그러나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등 경우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 대상이다. 도박장개장료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은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홀덤펍 등 영업원들을 고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에 대해선 철거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할 분담 등 조직성을 갖췄다면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단체구성죄를 저지른 주범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도박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회원제 등으로 은밀히 운영되는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있다. 율해부라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0~2세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급

현원이 정원 50% 이상일 경우...영아반인프라 유지 및 확충 도모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되는데, 이번 제도는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령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현원이 2명일 경우 62만 9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원이 5명인 1세반에서 현원이 3명이면 68만 4000원을, 현원이 4명인 경우 3만 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원이 7명인 2세반에 현원이 4명이면 69만 6000원을, 현원이 5명이면 46만 4000원 그리고 현원이 6명이면 23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영아반 인센티브

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2만 1000개 영아반을 개설·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함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하던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재활의학과 윤현식 물리치료사,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조강희) 재활의학과 윤현식 물리치료사(사진)가 최근 뇌졸중 환자의 고유수용성 감각 입력 훈련을 통한 재활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인 ‘감각 손상 뇌졸중 환자들에게 적용한 고유수용성 진동 감각 입력 훈련이 운동 기능 및 일상생활 동작에 미치는 영향(Effativeness of Proprioceptive Body Vibration Rehabilitation on Motor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Stroke Patients with Impaired Sensory Function)’ 논문을 발표해 국제전문학술지 『Healthcare』 2024년 12월 1호에 실렸다.

뇌졸중으로 인한 감각 장애는 매우 흔하다. 감각이 손상된 뇌졸중 환자에게 ‘고유수용성 감각 입력 훈련’은 환자의 재활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중재 방법이다. 이에 윤 물리치료사연구팀은 감각 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동 자극을 통해 고유수용성 감각

입력을 유도해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과 일상생활 동작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윤 물리치료사는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동 고유수용성 자극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중재 방법임을 확인했다.

윤현식 물리치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 우리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서산소방서, 겨울철 한랭질환 주의 당부

추운날씨 지속됨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대한 각별한 주의



등을 환자를 한랭질환자 라고 한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한파의 날씨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외출 시 장갑, 목도리, 모자 등 착용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산소방서(서장 김상식)는 추운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김상식 소방서장은 “추위에 취약한 어린이와 고령층, 만성질환자는 한랭질환을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큰 피해를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당진소방서, 인접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순성 119지역대 지역대장 임명

당진소방서는 순성면을 비롯한 인접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순성 119지역대에 지역대장을 임명·운영한다. 119지역대장은 치사관리 및 안전센터 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의 등을 원활하게 하고, 직·역·병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강 근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및 구급자격자 위주인 지역대의 화재진압능력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순성 119지역대장으로 임명된 소방위 서세진은 119지역대의 출동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책임 하며 다양한 소방 업무를 소화할 예정이다. 당진소방서 순성 119지역대는 서해안고속도로 및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증가하는 소방 임무를 수행하고 순성 지역 4,800여 명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소방서 ‘불나면 살피서 대피’

변경된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홍보



18~'22년간 아파트 화재 인명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상자의 27.5%가 대피 중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가 아닌 화재 발생 장소와 대피 여건을 고려해 발화층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자택 대피 및 구조요청 등의 피난 방법을 세분화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상황을 주시하며 먼저 판단한 후 행동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피난 요령’을 숙지하고 화재 발생 시 우리 집의 상황별 피난계획을 세워보길 바란다. 공주=정성범기자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가 기존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개정된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인 ‘불나면 살피서 대피’를 홍보하고 나섰다. 충청남도도 따르면 최근 5년

교총 “올해도 교권 보호 지원 강화한다”

이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 첫 도입! (치유지원금 100만원 지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직부대행 여난실기 올해 이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교권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교총은 “서울시 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4법 통과와 생활지도 고시, 교권보호종합방안 마련을 관철시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로 고통 받는 교원들이 많다”며 “억울한 교권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먼저 이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부분별, 무고성 이동학대 신고로 심신이 황폐화되는 교원들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이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이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은 이종삼중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실감을 느낀다”며 “법적 대응 외에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돕는게 필요하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 시 변

호사를 동행할 경우,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도 연 3억 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 부분별한 이동학대 신고는 물론 학교 폭력 사안 처리나 정상적인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은 민·형사 고소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료, 경찰서 변호사 동행료를 적극 지원한다.

현재 교총은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2018년 45건에 8100만원, 2019년 59건에 1억 4000만원, 2020년 92건에 2억 1070만원, 2021년 90건에 1억 6570만원, 2022년 81건에 1억 6030만원, 2023년 113건에 2억 9,01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4년인 올해는 최소 3억 2000만원 이상을 확보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대 교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전체 교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사건에 대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무고성 이동학대 신고를 하고,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계속 허위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사가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건 ▲2020년부터 제지에 게 카톡 등 SNS 학교 전파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차별적인 욕설, 인신공격, 명예훼손, 민원, 협박을 당한 교사가 스톱카방죄로 고소한 사건 ▲전교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이 선거 유의 사항 위반으로 무효가 되자 학부모가 교장·교감을 이동학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 ▲학부모 민원, 과로 등으로 유명을 달리던 경기 교감, 교사의 순직유족급여 청구권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교총은 “교권 침해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만큼 교총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원 보호와 지원의 1차적 책무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있는 만큼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와 교섭·합의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이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난 8일 시작으로 12일까지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이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외부 체험 장소에서 지난 8일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산 관내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및 돌봄을 지원하고,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에 목적을 두고 운영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학생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연령대를 나눠 어린이 베이킹(유·초3/4명), 퓨전떡만들기(초4-초6/6명), 블링(중·고/12명)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어린 베이킹은 재료 탐색 및 오감 발달 중심의 베이킹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탕정에 위치한 ‘달콤별방’에서 진행되고, 블링 프로그램은 신체 활동성 강화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용화동에 위치한 ‘드래곤볼 볼링장’에서 진행된다.

퓨전떡만들기 프로그램은 전통문화 체험 및 창의적 사고 함양을 목적으로 전통떡 및 퓨전음식 만들기 활동을 전문 강사를 초빙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직업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이산=리량주기자

공주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초등학교 겨울방학 학습결손 해소

겨울방학 기초학력 증진 운영 지원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공주 관내 학교를 방문해 겨울방학 캠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순회 방문은 2023학년도 겨울방학 동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캠프 운영과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되었다.

공주교육지원청은 2023년 한해, 배

움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순회교사와 학습코칭 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과 기초학력 지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각 학교에서는 방학 중 공백있는 학력 증진을 위해 학생의 사전 수요를 파악해 ▲대학생 교육도우미 활용 한글해독 교육 ▲문제유 교사를 활용한 문해력 강화 프로그램 ▲담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

류동훈 교육장은 “2024학년도도 관내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주도성을 깨워줄 기초학력 보강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겠다.”라며 “공주교육지원청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2023학년도 부여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수료식

부여 영재교육의 1년을 마무리하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은 2023학년도 부여 영재교육의 1년을 마무리하는 <2023학년도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수료식>을 부여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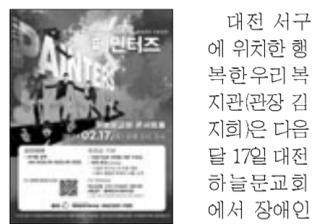
이번 수료식은 2023년에 부여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에서 소정의 영재교육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교육 활동에 대한 마무리와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1부 행

사로 영재교육 수료 학생에 대한 영재교육원장의 수료증 수여가 있었고, 2부 행사로 대왕초등학교 정선구 교사의 진행으로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수료식에는 영재교육 이수 학생 54명과 함께 이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 지도 교사 2명, 학부모 10여 명,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총 90여 명이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수료식에 참석한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김영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교육의 핵심은 새롭게 생각하는 창의성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며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인공이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더불어 부여교육지원청은 부여 지역의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부여=김성구기자

행복한우리복지관 ‘페인터즈’ 공연 개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행복한우리복지관(관장 김지희)은 다음 달 17일 대전 하늘문교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지

원을 위한 차광 구입 기금미련 공연, 페인터즈 미술 공연을 개최한다.

페인터즈는 독창적인 미술 기법과 창의적인 퍼포먼스로 유명한 그룹으로 (주)펜타토닉의 재능기부로부터 지원되는 이번 공연은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좌석은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으로, 관람 수익은 모두 행복

한우리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차광 구입 비용으로 사용된다. 지정 후원금으로 쓰여지는 만큼 좌석 예매 비용 모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행복한우리복지관은 장애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이번 공연을 개최했다.

김지희 관장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모금 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당진교육지원청, 겨울방학 중 희망자 50명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언어치료 지원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2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언어치료 대상자 중 희망자 50명에 대해 겨울방학 중 순회언어치료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동안에도 언어치료를 지원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 및 학습 효율성 제고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당 기간 중 주 1회마다 각급 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언어

재활사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에 최적화된 언어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희숙 교육장은 “겨울방학 동안에도 지속적인 치료지원제공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일상생활 기능과 사회 적응력을 신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치료지원과 장애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2024학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총력’

세종시교육청, 관내 167개 학교 대상 교부... 전년 대비 138억원 증가

세종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024학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2024학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과 규모는 유·초·중·고·특수 167개 학교 대상 1,039억원이다.

이번 학교운영비 지원에는 신설 학교 3교(비른유, 산울유, 바른초) 개교와 학급 수(52학급), 학생 수(3,372명) 증가에 대해 반영했고,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8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학교운영비 지원의 핵심은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교부사업비를 확대 편성한 것이다.

주요 통합교부사업으로는 ▲세종미래학교운영지원(141억원) ▲현장체험학습비지원(42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56억원) ▲초등기초학력교육봉사지원(129억) ▲유치원방과후(돌봄)과정운영지원(46억원) 등이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학교운영비 확대 지원은 교육과정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권 확대를 도와 학교차기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2024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공교육의 정도(正道)와 질적 도약을 위한 새출발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은 9일 대회의실에서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공·사립 유치원장, 초·중학교 교장, 서부 관내 학교운영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서부교육 비전 공유를 위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해 거둔 우수성과들을 공유하였다.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전국과학전람회 등 유수의 과학대회에서 초·중학생 50여 명이 수상하여 과학교육의 신실임을 증명하였다. 체육 분야에서는 전국 소년체전 메달 36개, 전국 중별핸드볼선수권대회 우승, 전국 유소년클럽배구대회 우승 등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전국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에서 17명의 초·중등교사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방면의 성과를 거두어 대

전서부교육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이어, 2024년 대전서부교육의 중점 정책방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교육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원행정의 5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해 2국 6과 2센터의 행정력을 결집 하겠다는 새해 각오를 다졌다.

또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두 역할과제를 선정하여 교육활동을 추진한다. 첫째는 지구형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실천적 인성역량 함양, 둘째는 다독인 프로젝트**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신장이다. 실행력을 갖춘 바른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행복한 서부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서천 졸업생에게 전승민 작가 도서 200여권 기증 서천교육지원청서천도서관(관장 신호정)은 1월 8일 전승민 작가로부터 나는AI와 일한다' 도서 200여권 약 300만원 상당을 기증받아 기증식을 개최했다. 전승민 작가는 서천지역 독서활성화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사회초년생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논산중학교 ‘생명사랑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논산중학교(교장이우열)는 지난 4월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화 겨울왕국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미디어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의 형태와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과 성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금산동중학교, 학생자치회 주관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 실시



금산동중학교 학생자치회가 지난 1월 8일 사단법인 희망의 언덕과 함께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에 운영되는 행복한 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사단법인 ‘희망의 언덕’과 함께 추진한 이번 활동에는 금산동중 학생자치회 회장 조아름별과 13명의 학생들, 희망의 언덕 류상현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함께 모여 연탄 760장과 과일 선물을 정성껏 배달하고, 따뜻한 사랑 실천을 하며 어려운 이웃과 훈

훈한 정을 나눴다. 이번에 기부한 연탄은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 축제 등 교내 행사를 통해 조금씩 모은 수익금을 활용하여 구입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한 조아름별 학생은 “어르신들께서 우리가 직접 배달한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우리 후배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정순 교장은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경로당 김장 나눔 봉사, 이번 연탄 기부 배달 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 등을 통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금산동중 학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 학생들이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금산동중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금산=이정복기자

예비·신혼부부·임신부 검사비 지원

공주시, 관내 7곳 의료기관과 협약 체결해 풍진 검사 등 지원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예비부부와 임신 중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돕기 위한 검진비를 지원한다.

검진비 지원 사업은 신혼(예비)부부에 대해 임신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혹은 예비부부이거나 임신부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항목은 혈액·소변·간기능 검사 등이며 신혼(예비)부부는 풍진 검사 등 11종, 임신부 검사는 B형간염 정밀 검사 등 1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이번 검사비 지원을 위해 관내 7

개 의료기관(충청남도공주의료원, 미연맘산부인과, 서울산부인과, 순풍산부인과, 다나안산부인과, 이비뇨기과, 임성육비뇨기과)과 협약을 체결했다.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쿠폰이 발급되는데 이를 지참하고 협약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지정 항목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공주시에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 부부라면 임신제와 임신테스트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840-3674)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성범기자

예산3·계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군, 군민 재산권 보호·토지 효율적 이용 제고

예산군은 예산 3지구(587필지, 24만 5066㎡) 예산 초등학교 일원, 계촌1지구(679필지, 37만8291㎡)계촌리 마을회관 일원(를 대상으로 국비 약 2억3800만원을 투입해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 기술로 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이다.

군은 2012년 예중 지구를 시작으로 21개 지구, 1만3801필지를 완료·추진 중이며, 예산(예산·주교·산성·신례원리), 삼교읍(두·신가리) 등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심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유자 협의를 통한 경제 바로잡기를 적극 진행 중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

경제 저축 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땅지 해소, 토지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재조사 사업 지구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주민 설명회 실시, 현장 상담 추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개인 이해결하기 어려운 지적 경계를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 봉사과 지적 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박제화기자

아산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배방) 사업 신청·접수 중

아산시는 배방을 자이아파트, 복수초등학교, 호서대학교 주변 농경지의 체소 재배에 따른 축산분뇨 및 퇴비 사용 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와 체소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비료 구매비 지원을 나선다.

'2024년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배방) 사업'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배방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지를 둔 330㎡ 이상 배방을 체소재배 농업인으로 지원 한도는 10a당 최대 30포(20kg)이며, 유기비료 1포당(20kg) 최대 4,75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2월 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배방을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비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악취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배방 자이아파트 등 주변 농경지 체소재배 농업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도지사 표창 수상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참여와 공정한 건설문화 형성에 따른 것으로, 시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 계획을 발굴‧수립함은 물론 지역 내 각종 현안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감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청남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이 하루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김성구기자

홍성농기센터 2024년 홍성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농업 창업아이템 심화·스마트딸기학과·스마트청년농업인학과 운영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요자 중심, 단계별·수준별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2024학년도 제20기 홍성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홍성농업대학은 ▲농업 창업아이템 심화(20명) ▲스마트딸기학과(30명) ▲스마트청년농업인학과(30명) 3개 학과로 운영되며, 총 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각 과정별

6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실기·실습교육, 현장견학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군민이어야 한다. 단, 스마트청년농업인학과는 경우 홍성군 귀농·귀촌 예정자를 포함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홍성농업대학 입학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에 해당 구비서류를 접수처인, 사진, 주소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팀(630-9102, 9217)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김금영 교육경영팀장은 "홍성농업대학은 전국 147개소 농업인대학 중 2023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홍성군 농업인을 위한 최고 교육과정이다. 앞으로도 농업·농촌 현장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반영하여 농업경영과 과학농업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아산시는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독립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며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이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들을 선발하여 월 90~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차등 지급하며, 사업 지원 희망자는 이번 달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상에서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으로 올해부터는 이번 달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될 경우 최대 5억원(상환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인 후계농육성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석 농촌자원과장은 "아산시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을 발굴해 변화하는 농업 현장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겠다.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아산시행복키움 충남도 시민활동가 우수사례로 인정



아산시는 8일, 아산시청 중회의실에서 17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장으로 구성된 '아산시행복키움추진단협의회' 1월 임의회의를 개최 goT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행복키움 지원 유공 도지사 표창(시장 전수), ▲2024년도 행복키움지원사업 추진 방안 논의, ▲행복키움추진단 활동 수당 지원 안내, ▲위기가구 발굴 신고 시민 포상제도 활성화 및 적극 홍보 당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리 마을에서는 위기가가 없기를 바라는 소명감'을 바탕으로 2024년도 행복키움지원사업의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시민 중심의 자치복지 실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행복키움추진단은 17개 읍면동 571명의 단원이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주민이 주인공인 복지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도고 쪽과 유기비료 지원 사업' 신청·접수 중

아산시, 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비료 구매비 지원

아산시는 도고 저수지 상류 지역 수질 환경 개선과 쪽과 주산지인 도고 쪽과 재배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비료 구매비 지원에 나선다.

2024년 도고 쪽과 유기비료 지원 사업'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도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지를 둔 0.1ha 이상 도고 저수지 상류 지역 쪽과 재배 농업인으로 지원 한도는 10a당 최대 30포(20kg)이며, 유기비료 1포당(20kg) 최대

4,75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2월 2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방문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적절한 유기비료 지원을 통해 도고 저수지의 수질 환경이 개선되고 쪽과 주산지인 도고에서 고품질 쪽과가 생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예산군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내포권역 신혼부부 증가와 출산장려정책 요인 작용 분석

예산군에 2023년 281명의 아기가 출생한 가운데 2022년 231명 대비 21.6%가 증가하면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교읍 출생아 수가 2022년 81명에서 2023년 139명으로 58명 증가해 12개 읍면 중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군은 출생아 수 증가 요인을 충남내포 혁신도시 지역 신혼가구 증가 및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 작용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지원금을 기존 첫째 200만원에서 500만원, 둘째 400만원에서 1000만원, 셋째 600만원에서 1500만원, 넷째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총 394명에게 9억52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임신 준비하는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아기 마중 사업인 기초검사 및 풍진 항체 검사, 임신제, 배란테스트기, 임신테스트기를 지원 중이며, 특히 지난해부터 난임 부부정부 지원 제외 대상인 소득초과 대상자들에게 예산형 시술비를 지원한 결과 12가구의 난임 가정에서 15명의 아기가 출생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어 임신부 건강 관리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비용 및

큰 아이 돌봄 비용 지원, 첫남남 이용권 200만원 지원, 2자녀 이상 출산 다치녀 담의료비 20만원 지원, 출산 축하바구니 지원 및 각종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육아를 장려했다.

예산군은 출생아 수 증가와 충남 내포 혁신 도시 지역 신혼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포 보건지소에 전담팀을 신설해 임신부의 편의 증진 및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내포 보건지소 '출산·영유아 건강지원팀'에서는 ▲예비부모 임신준비 지원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다치녀 담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축하바구니 전달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 등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속에서 다행히 우리 군은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화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4-26 대동빌딩 1층

www.daejeontoday.com

동정

보고회



박경규 아산시장은 10일 오후 1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2024년 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회(2일 차)'에 참석.

농업인 실용교육



오성환 당진시장은 10일 오후 1시 30분, 합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농업인 실용교육



가세로 태안군수는 10일 오전 10시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태안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취임식



김돈곤 청양군수는 10일 오전 10시 장평면 다목적회관에서 열리는 장평면 새마을 남녀협의회장 취임식에 참석.



태안군 '설날장사 씨름대회' 열려 남녀 7개 체급·단체전 진행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충남 태안군에서 펼쳐지는 '축제 한마당'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군은 오는 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태안을 평천리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2024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히고 전국 씨름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설날장사 씨름대회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씨름을 널리 알리고 전통·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되며 대한씨름협회에 주최된다. 남녀 7개 체급 및 단체전 경기가 진행되며 공중파(KBS 1TV) 및 케이블스포츠채널(KBS N)에서 중계될 예정이어서 설 명절 전국적인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9월 추석장사 씨름대회와 2022년 10월 대동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태안군은 올해 설날장사 씨름대회 개최지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며 씨름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군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각종 시설 정비 및 홍보에 나서고 태안이 자랑하는 문화관광 자원 및 지역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태안군이 씨름 강군(強郡)임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우수한 성적을 거두겠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서해안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태안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취약계층 주거급여 예산 26억 원 확보

태안군, 올해 주거급여 수급 1800여 가구에 임차료·개·보수 지원 나서기로

태안군이 올해 주거급여 예산 26억 원을 확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태안군은 지난해 말 국·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주거 취약가구의 임차료 지원에 23억 원을, 자기주택의 개·보수 지원에 3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및

집수리 등 수선유지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태안지역 대상 가구는 1800여 가구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나 주택 노후도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올해 48%(4인 가구 기준 275만 358원)로 확대됐으며,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지난해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올해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은 저소득층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했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가 2018년 10월 폐지됨에 따라 올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고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

인 예산 확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가장 필요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태안군 조성을 위해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제19기 당진농업기술대학 신입생 모집

온라인마케팅·스마트농업 2개 과정 70명 모집

당진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19기 농업기술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과정은 온라인마케팅(30명), 스마트농업과정(40명)으로 총 2개 과정 7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1년 과정으로 주 1~2회 4시간씩 이론

과 실습수업으로 진행되며, 지원 자격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희망하는 자다. 전년도 대학 미수료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은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인재양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재 제18기까지 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전문 농업인으로서 당진 농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2024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 간담회' 가져



아산시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2024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아르바이트 근무 안내와 함께 박경규 시장과 참여자들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경규 시장과 아르바이트 참여자들은 아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과 아산시의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폭넓은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겨울 방학 기간에 관내 대학생에게 일자

리를 제공하고 시정 체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행정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며 복지업무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경규 시장은 "아산시의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갑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아산시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고위험 임신부 입원 치료비 지원

당진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당진시보건소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으로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19세 고위험임신 질환 임신부에 대해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19세 고위험 임신 질환이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 다구태,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성

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9세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신부이며,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 원 범위에서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진단서 ▲임피넬린 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산모 통장 사본 각 1부를 지참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진시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성웅 이순신 축제' 4월 24일부터 5일간으로



아산시 대표 축제인 '아트밸리 아산 제6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오는 4월 24일(수)부터 28일까지 5일간 열린다. 지난해 이순신 축제

'아트밸리 아산 제6회 성웅 이순신 축제'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2024년 제1회 아산시 축제위원회'를 열고 축제 일정을 확정했다. 박경규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시 축제위원, 이순신 축제 총감독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계획과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축제를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축제에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아산시에 세계축제대회

한국대회 대표 특별프로그램 부문 최고상을 안겨준 군악·의상 퍼스 티발을 필두로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 백의종군길 걷기대회 및 마라톤대회, 428 시민 합창단, 이순신 기억하기 프로젝트, 이순신 장군배 전국 노 젓기 대회, 뮤지컬 '필사군생' 등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박경규 시장은 "오늘 축제위원회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훌륭한 첫걸음이었다"면서 "지난해 성웅 이순신 축제가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올해는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더 높아진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자"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아산시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 열려

박경규 아산시장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조직의 모든 운영은 '성과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박 시장은 "2024년은 민선8기가 후반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해로, 체계적인 성과를 이뤄야 한다. 인사, 조직, 예산, 기획까지 모든 업무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기준에 해왔던 사업도 성과를 점검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직렬과 정원 역시 기간제 직원의 관행적인 증원을 막고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원 이상 전원 확대간부회의 참석 및 부서별 유기적 협업 ▲공무직 대상 업무평가 및 순환 전보 적용 ▲부서별 인 수인계 철저 ▲의무기관 평가, 신규 발굴 ▲정부 공모사업 도전 목표 제시 등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간부들에게 '현장 중심'의 업무를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발품을 팔며 시정을 파악했고, 이 때문에 민선8기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펼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국장·과장이 직접 현장 중심으로 뛰어야 한다"며, "시장 혼자 될 수 없다. 간부들이 더 많이 뛰고, 현장에 밝아야 한다. 시장이 모르는 현장의 상황을 간부들이 파악해 사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은 더 큰일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읍면동 열린간담회 사전 준비 만전 ▲본 예산 삭감 대응 상반기 추경예산안 조기 편성 ▲재선출 확산 방지책 점검 ▲이민청 유지 서명 적극 추진 ▲불법현수막 범칙금 부과 등 단속 강화 ▲보조금 단계 관리·감독 철저 등을 주문했다.

아산=리량주기자

143억 규모 농업 보조사업 신청자 접수

청양군,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자 접수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업생산 안정화를 위한 농업지원에 143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난 5일 고시 공고 후 접수를 시작한 군은 해당 읍면을 통해 원예 특작 분야, 식량 산업 및 친환경 확대 분야, 농특산물 유통 분야 등 67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에 특작 분야에서는 안정적 원예생산 20개 사업, 고품질 과수 생산 5개 사업, 전략적 특작산업 활성화 6개 사업, 스마트 미래 농업 확산 4개 사업을 지원한다.

또 식량 산업 및 친환경 확대 분야에서는 농업농촌 기계화 8개 사업, 안정적 식량 산업 육성 8개 사업,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9개 사업을 지원한다.

농특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농산물 품질관리 지원 2개 사업, 농특산물 수출 확대 지원 3개 사업, 농특산물 판촉 지원 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시설 분야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예비사업자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 1차 심의 후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는 해당 읍면 산업팀에 통합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유태조 농정축산실장은 "농업인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하고 균형 있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대상자 선정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440억 투자

청양군, 행복 100세·고령친화도시 조성 이바지할 계획

청양군 맑은물사업소소장 오수환가 올해 예산 440억 원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통해 '2024 행복 100세,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청양읍백천리에 자리한 사업소는 '물관리 일원화 3법' 제 개정과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 확정으로 2022년부터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광역 및 마을 상수도 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수질관리와 상하수도 전반에 걸친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주요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39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35억 원, 비상 공급망 확충 49억 원, 광역상수도 확충 59억 원, 하수도 정비사업 24억 원, 공공 하수처리장 확충 10억 원 등이다.

오수환 소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오염의 증가와 물 부족으로 먹는 물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체계적인 물관리와 건강한 물 공급으로 군민 누구나 행복 100세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백성현 논산시장 新변전소 건립 제안

전기(電氣)로 전기(轉機) 만든다, 논산발전 인프라 혁신 기대감 증폭

백성현 논산시장이 지난 8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만나 국가전략사업인 국방군수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연무변전소 신설을 제안했다.

백 시장은 "과거 관내 2차전지 유망 기업이 전력공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규모 투자를 접고 타 지역으로 공장을 증설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안정적 전력 공급망 구축은 투자유치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철 사장 역시 백 시장의 제안에 깊게 공감하며 변전소 추가 신설에 적극 관심을 쏟겠다고 답했다.

논산시는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은 물론 중앙부처, 충남도 등과 손잡고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키워나 가겠다는 의지다. 또한 국방군수 산업을 비롯한 지역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국방군수산업 중심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확고한 당위

성을 만든다는 목표다. 한편, 신규 변전소 건립 예정지인 논산시 연무읍에는 국방군수 산업의 핵심축으로 2,969억원이 투입되는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소 건립과

1,917억원 규모의 국방국가산업 단지가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근 양촌면 일원에 ㈜코리아 디펜스인더스트리가 1,200억원을 투자해 산단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비푸드, ㈜알루코그림, 미래생활허브 등 건실한 기업체들이 수천억 규모의 투자에 나서는데 논산에 지역경제 성장·일자리 창출에 호재가 이어지는 중이다.

백 시장은 "논산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둔 만큼 전력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한전과의 긴밀한 협업 속에 변전소 신설에 속도감을 높여 지역성장의 에너지 원으로 삼고, 강화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계룡시 새해 금연 실천하세오

상담·니코틴 의존도 측정 등 다양한 지원 실시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시민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소장 이금용)에 따르면 금연클리닉은 금연 의지만 가지고 금연을 하기 보다는 전문 금연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한 금연교육 실시, 호기입산화탄소 측정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단현상 대처 요령 및 금연 강화물품 지원 등 대상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6개월 간 다양한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을 망설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금연클리닉 상담 등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을 진행한 모든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며 시민들이 금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금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금연 클리닉 외에도 금연 홍보 캠페인 전개, 알차 마를 활용한 일반음식점 대상 금연 홍보,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 지정 등 다양한 활동으로 금연을 독려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금연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금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계룡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연 관련 상담 및 도움은 계룡시 보건소 금연클리닉(042-840-3536)에 문의하면 된다.



부여읍 '찾아가는 동행콘서트'

박정현 군수, 민생현장 중심·군민체감행정 실천 약속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8일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찾아가는 동행콘서트'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부여읍 주민 200여명, 충청남도의회 의원, 군의원, 유관 기관단체장들이 자리한 가운데 2024년도 부여군 군정방향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부여읍 구교리 서명선 노인회장은 백마강 부지를 활용하여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관광지로 개발하기를 희망한다며 백마강국가정원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정현 군수는 "백마강국가정원은 다른 지자체보다 양호한 하천 환경을 토대로 하여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추가로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국가정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밖에도 ▲주차난 문제 해결 ▲마을 안길 조성 ▲주민자치회 예산 삭감 ▲황돛길 조성 ▲대형차량 불법 주차 문제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 ▲백제문화재 개최 등 민생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부여시장 현대화·활성화 사업 ▲장미원 복고리 세명기업사 불법 폐기물 처리 ▲백마강 국가정원 추진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건립을 4대 현안과제로 뽑고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직접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박정현 군수는 "최대한 많은 군민이 수혜자가 되도록 행정 만족도를 제고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오늘의 대화를 최대한 행정에 반영하겠다"며 군민체감 행정 실천을 약속했다.

(주)논산전력 1000만원 지정 기탁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8일, (주)논산전력(대표 이영미)에서 홀몸 어르신을 위한 내복 구입비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영미 대표는 "추위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 걱정되어 내복 구입비를 기탁하게 되었다"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추워진 날씨에 홀몸어르신을 위한 나눔 참여에 감사하다"며 "관내 홀몸어르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부금에 감사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기탁금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논산시 홀몸 어르신들에게 내복을 구입해 전달될 예정이다.

'빛과 꽃의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열어

계룡시, 민선8기 공약사항인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 제시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빛과 꽃의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

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작년 5월 사

업을 착수하여 이날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했으며, 보고회에는 이응우 시장과 관련 부서장 및 자문위원 등 27명이 참석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대학교 연구진은 '마음이 행복한 스트레스제로, 치유정원도시 계룡'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꽃으로 사는 삶, 7계절의 정원도시 계룡'이라는 목표로 추진전략을 구상했다.

추진 전략으로는 ▲어메니티 향상 및 그린복지 실현을 통한 거주성 제고 ▲정원을 통한 군사/평화도시의 상징성 확보 ▲독특한 정원도시 이미지 창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드닝 커뮤니티 형성 이 제시됐다.

아울러 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으로는 ▲계룡시 애국가 상징정원 ▲6.25 한국전 참전국 상징테마원 ▲6.25 한국전 참전국 전통정원 ▲연화교차로 정원 등 다양한 정원과 야간경관 구상안을 제안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추진전략과 기본구상 외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전략도 함께 보고돼 참석자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시는 보고된 내용을 계룡시 실정에 맞도록 보완‧수정해 기본계획을 완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응우 시장은 "빛과 꽃의 정원도시가 조성되면 계룡시민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우리시를 상징하는 또 다른 랜드마크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하루 속히 시민들께 아름다운 정원도시 계룡을 선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시설물 개선에 나서

연내 부여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횡단보도 조성



노태현 서천부군수 '군정 현안 파악 돌입' 첫발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부군수주재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회 열려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풍토를 만들 것이라는 노태현 서천군 부군수가 부임 직후 군정 현안을 발 빠르게 파악하며 공직 리더로서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노태현 부군수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8일 부여읍 부여초등학교 앞 육교철거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사업장은 쌍복리 육교시설에 대해 낙상사고 등 불편을 호소한 단체민원이 접수된 장소로 당초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설치공간 부족 및 육교 노후화로 인해 철거 후 횡단보도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선회하였다.

아울러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신호 최적화와 교차로 효율 극대화 방안도 사전 검토하여 교통사고에

방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환경도 제고하고자 고심하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연내 준공되는 이 사업은 보행자와 차량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 여러 기관과 협의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을 직접 살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김성구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등정

찾아가는 동행콘서트



박정현 부여군수= 10일 오후 3시 초촌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현장방문 및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동행콘서트에 참석.

군민과의 대화



김기웅 서천군수= 10일 오전 10시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벼, 고추)에 참석, 오전 10시 30분 서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열린 군정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 오후 2시 30분 기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열린 군정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도시사 표창 수상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참여와 공정한 건설문화 형성에 따른 것으로, 시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굴·수립함은 물론 지역 내 각종 현안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공 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근력 운동교실 운영

부여군, 운동프로그램 신규사업 추진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농한기를 활용 낙상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근력운동교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노인인구가 23년 12월 말 기준 24032명으로 전체 인구의 39.4%인 가운데 어르신들의 근력약화로 인한 낙상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근력운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새롭게 근력강화 운동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전문강사가 주3회 8주간 35개 경로당을 방문·진행하며, 참여 어르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전·후 건강평가와 근감소증자가설문, 노인신체기능검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부적초등학교 교육공동체

고사리손 정성 모아백미 기부

논산시 부적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1월 8일 부적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홀로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백미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고사리손으로 앞치마, 인형, 테라리움 등을 만들고, 학부모들이 먹거리를 준비하여 선생님들과 함께 열었던 나눔장터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625,000원으로 쌀을 구입한 것이다.

한편, 기부된 쌀은 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통정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보령시장 = 10일 오전 10시 천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오후 6시 보령베이스에서 열리는 보령시 기업인협회 신년하례회 및 회장이·추임시 참석.

간부회의



이완섭 서산시장 = 10일 오전 8시 40분 시장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오후 3시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

새해 설계 기자회견



박범인 금산군수 = 10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리는 새해 설계 기자회견에 참석.

희망2024 나눔캠페인 6억 원 모금



금산군은 지난 8일 기준 희망2024 나눔캠페인을 통해 6억 원을 모금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62일간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금산을 가치있게'를 슬로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성금모금행사를 비롯해 기업, 단체, 개인이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당초 목표인 5억 원을 120% 초과했다.

모금에 참여한 곳을 살펴보면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1억4000만 원) △산림조합(1억 원) △(사)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6863만 원) △삼남제약(3000만 원) △금산농협중앙회(2000만 원) △대주개발(1000만 원)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 태진수 명예회장(500만 원) 등이다.

모인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긴급지원, 활동 난방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성금 기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과(☎041-750-2142) 및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희망2024 나눔캠페인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며 "남은 기간 따뜻한 나눔이 계속해서 활발 타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금산군, 귀농교육센터 교육생 모집

주택형 6세대·기숙형 2세대 등 대상

금산군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교육센터 교육생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세대는 69.4㎡ 주택형 6세대, 49.5㎡ 기숙형 2세대 등 총 8개로 입교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신청 방법은 입교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를 작성 후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입교자 선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되고 공실발생 시에는 수시모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전에

금산군귀농교육센터에 방문해 상담받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며 "금산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하겠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귀농교육센터는 군북면 어팔각로 264-18 일원에 2만 6400㎡ 규모로 체류형 주택 16동, 기숙형 4실, 텃밭, 교육관 1동, 공동실습농장 등을 운영 중이다.

우리/동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시행

서산시, 160억 투입 3천787명 일자리 제공

충남 서산시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9일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160억을 투입, 총 42개 사업에서 3,78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산시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은 160억 원으로 지난해 118억보다 약 42억 원, 모집인원은 556명 증가한 수치로 어르신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했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2,682명 ▲사회서비스형 627명 ▲시장형 329명 ▲취업알선형 149명이다.

각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시는 1월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후 12월까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서산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지역사회에서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새해맞이 관내 경로당 방문

공주시 신평면,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전해

공주시 신평면(면장 정연만)은 새해를 맞아 관내 경로당 30곳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정연만 면장은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안부를 확인하고, 관내 주민이 지칭 기탁한 백미(10kg) 한 포씩을 전달했다.

또한, 한파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곳곳을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에 따른 예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연만 면장은 "청룡의 기운을 듬뿍 받아 관내 어르신들께서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어르신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15~19일 모집

보령시,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 파악

보령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이끌어갈 조사요원 24명을 모집한다.

사업체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의 공동항목 등을 토대로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자료 등 지역개발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조사요원은 총관리자 1명, 조사관리자 3명, 조사지원 관리자 1명, 조사원 19명 등 총 24명이다. 신청 자격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이며, 계약기간 중임부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지정장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통계조사유경험자 등을 우대한다.

채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령시 홍보미디어실 데이터통계팀(☎041-930-3196)에 방문 또는 이메일(one33@koreakr.go.kr)로 접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천북면 자율방범대

사랑의 후원금 1300만원 기탁

천북면자율방범대(대장 정재관)는 지난 8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1300만 원을 천북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천북면자율방범대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최한 후원바자회와 성금기부를 통해 모인 기금 1300만원 중 900만원 상당을 농협상품권으로 구매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60가구에 지원하고, 400만원은 충

남도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하여 추후 천북면민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후원금기탁은 사회 취약계층, 지역의 위기가정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천북면자율방범대는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아가고 있다.

정재관 자율방범대장은 "이번 후원금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춘아 천북면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율방범대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태선 기자

보령시, 2023년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통해 대학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지원

보령시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 하반기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인 9월 기준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인 사람 포함/대학생 제외)이다.

지원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학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분이며, 지급일까지 대출금을 완납한 경우와 국가 및 타 지자체·기업체로부터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외

된다.

신청방법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 접속해 '학자금'을 검색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내내를 클릭 후 신청서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접수된 대학생의 정보와 학자금 이자액을 확인해 개인에게 별도의 입금 없이 한국장학재단을

김태선 기자

금산군,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해외어학연수 운영

원어민 참여 1대1·그룹·자기주도 학습 등 추진

금산군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서 해외어학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 관내 초등생 47명, 중생 43명 등 총 90명이 참여한

다. 연수 비용은 529만 원으로 이중 군 지원은 384만 원, 학생 부담금은 145만 원이다.

군은 집중 학습으로 영어실력 향상 및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 및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 문화 체험을 통한 국제 감각을 함양해 나갈 방침이다.

연수 장소는 영어교육과 숙박이 동일한 곳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학생 수준에 맞는 원어민 참여 1대1, 그룹, 자기주도 등 학습 1일 10교시로 시행된다. 주말특별할

김태선 기자

대풍(주) 오흥권 대표, 서산시에 성금 1억 원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터 가입

충남 서산시는 대풍(주) 오흥권 대표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부하며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9일 시장실에서 열린 성금 기부식 및 아너소사이어터 가입식에 이완섭 서산시장, 오흥권 대표(주) 대표이사, 성우중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정희영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훈 충남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팀장 등이 참석했다. 아너소사이어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내 남부를 약정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오흥권 대표는 서산시 5호 가입자가 된다.

오흥권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기부를 결심했으며, 전달한 성금을 통해 나눔의 온기가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기부한 성금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로 지정 기부되어,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에 새로 아너소사이어터 가입자가 탄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나눔으로 더욱 살맛 나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성금을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공주시 중학동,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 잇따라

공주시 중학동(동장 김명구)은 새해를 맞아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공주시청년회(강남지회장 유진호)는 100명의 회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백미 10kg 50포를 구입해 중학동에 기탁했다.

이어 중학동새마을회(회장 정인복)는 회원 20명이 마련한 연탄 500장을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공주시청년회는 지난해 절기마다 백미와 식료품,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중학동새마을회도 매월 밀반찬을

만들어 관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왔다.

계속해서 황금향, 단감 등 과일을 후원하거나 성금을 놓고 가는 익명의 후원자들도 잇따르면서 추운 겨울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김명구 중학동장은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이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따뜻한 중학동이 될 수 있게 어려운 기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겠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320여편의 연구논문 지속적 발간해 온 충청 지역 전문학술지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35집 발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35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충청학과 충청문화’는 2002년 창간해 20여 년간 320여 편의 연구논문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온 충청 지역 전문학술지다.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35집은 충남 내포

권역권의 천주교 유적군과 세계유산 관련 기획특집 논문 4편과 개인 연구논문 6편으로 구성됐다. 기획특집에 실린 4편의 논문(천주교의 자발적 수용과 내포 지역 성호학파의 역할(서종태 해미국제성지 신앙문화연구원), [18세기 말 양반중심에서 평민중심으로 천주교회의 전환 과정]이석원 수원교회사연구소), [내포 천주교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방향 검토]김성태 내포교회사연구소), [내포지역 교우촌의 입지 조건 및 특징]임병조 천안쌍용고등학교)은 내포지역의 천주교 초기 수용과정과 신앙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고 신앙공동체 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이들 논문은 향후 내포 지역의 천주교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선정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논문 외에 개인 연구논문으로 [웅진·사비시대 백제의 외교사-대중국 외교를 중심으로-]김수태 충남대학교), [심석재 송병순과 19세기 육원 양남향약(김종수 세명대학교), [면암 최익현의 충청도 반구과 과정과 반항-반구일기를 중심으로-]이왕무 경기대학교), [1938-1945년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의 석표 건립을 위한 조선총독부 행정절차와 석표양식]김명선 선문대학교), [1945-1960년 시기 유진산의 정세 입문 배경과 정치 활동]김진홍 성균관대학교), [1960년대 전반기 아당가의 재편성과 파벌 정치의 전변화-유진산과 진산계를 중심으로-(신창훈 고려대학교) 등 6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한편 ‘충청학과 충청문화’는 2023년 한국

연구재단에서 시행한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 돼 전문학술지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발행 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2018년부터 등재학술지 선정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우수 연구논문을 유치를 위해 ‘충청학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역량 있는 연구진을 편집위원으로 선정했다. 또한 연구윤리 규정 등을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김낙중 원장은 “충청학과 충청문화의 등재학술지 승격으로 충청 지역 최고의 전문학술지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충청학 관련 우수 논문을 계속 소개해 더욱더 경쟁력 있는 학술지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목원대 LINC 3.0 사업단 창업동아리 학생들

‘펜 크리에이터 윈터 페스티벌’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 LINC 3.0 사업단은 창업동아리 학생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펜 크리에이터 윈터 페스티벌’(PEN CREATOR WINTER FESTIVAL)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PEN CREATOR’는 목원대 창업동아리의 새로운 이름으로 열정 있는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전사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원대의 의지가 담긴 고유 브랜드이다. 이번 캠프는 학생 주도로 기획했다. PEN CREATOR 구성원 중 리더들을 선발해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선호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생 주도의 기획으로 학생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했고, 리더들의 역할 인식 및 책임감을 높이는 유익한 자리였다. 이번 캠프는 학생 주도로 기획했다. PEN CREATOR 구성원 중 리더들을 선발해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선호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생 주도의 기획으로 학생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했고, 리더들의 역할 인식 및 책임감을 높이는 유익한 자리였다. 이번 캠프는 학생 주도로 기획했다. PEN CREATOR 구성원 중 리더들을 선발해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선호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생 주도의 기획으로 학생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했고, 리더들의 역할 인식 및 책임감을 높이는 유익한 자리였다.

창업동아리 학생들은 한국온라인마케팅진흥원 김석현 대표의 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과의 협력 및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리코리(RECORE) 이주희 대표의 클라우드 펀딩 강의를 통해 실제 펀딩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웠다. PEN CREATOR 시상에서는 지난해 적극적인 활동과 성과를 창출한 학생들을 시상했다. ‘PEN 혁신창업가상’은 컴퓨터공학과 최병진씨·도자디자인학과 박수진씨가 받았고, ‘PEN 기업가 정신상’은 컴퓨터공학과 이종찬씨·경영학과 박민준씨·조형콘텐츠학부 이태훈씨가 수상했다. 김태선기자

한국적보박물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조선시대 나침반과 띠동물’ 운영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환)는 뿌리공원 내 한국적보박물관에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조선시대 나침반과 띠동물’을 오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조선시대 나침반의 나경을 통해 동서남북을 표현하는 12띠 동물에 대해 배우고 남북을 잇는 자오선, 낮12시를 뜻하는 정오, 밤12시를 뜻하는 자정 등 일출 어휘의 기원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참여자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족보를 찾아다니며 조선시대 기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등 전달식 역사 강의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조상들의 생활 문화를 실생활과 역사 공부에 직접 적용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환은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조선시대 나침반의 나경을 통해 동서남북을 표현하는 12띠 동물에 대해 배우고 남북을 잇는 자오선, 낮12시를 뜻하는 정오, 밤12시를 뜻하는 자정 등 일출 어휘의 기원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참여자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족보를 찾아다니며 조선시대 기록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등 전달식 역사 강의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조상들의 생활 문화를 실생활과 역사 공부에 직접 적용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적보박물관 3층 교육실에서 진행되는 ‘조선시대 나침반과 띠동물’은 효율드 누리집(http://한국적보박물관한국)을 통해 10일부터 18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충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3 제2외국어(중국어)교사

융합형 직무연수 국외과정 운영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원장 김연화)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제2외국어(중국어)교사 융합형 직무연수 국외과정을 대만 타이베이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외과정은 중국어 교사들의 실질적 의사소통 역량 함양과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대만 실천대학교에서 2주간 운영된다. 총 12명의 연수생들이 전각예술품을 활용한 중국문화수업, 중국어 발음교수법과 디지털 콘텐츠 활용수업, AI 활용 언어교수학습 워크숍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듣는다. 또한, 국립 중고등학교를 방문, 수업관찰을 하고 현지 교사들과 수업나눔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정상범기자

이번 과정은 중국어 교사들의 실질적 의사소통 역량 함양과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대만 실천대학교에서 2주간 운영된다. 총 12명의 연수생들이 전각예술품을 활용한 중국문화수업, 중국어 발음교수법과 디지털 콘텐츠 활용수업, AI 활용 언어교수학습 워크숍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듣는다. 또한, 국립 중고등학교를 방문, 수업관찰을 하고 현지 교사들과 수업나눔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성북수장학회, 둔포면에 장학금 340만원 전달

전국 보훈병원 시설 확충한다...위탁병원도 최대 규모로 확대

중앙보훈병원에 2028년까지 294억 원 투입...시설 증축·진료 공간 확장 등

국가보훈부는 고품질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보훈병원 기반 시설 확충과 위탁병원 확대, 보훈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보훈부는 먼저, 늘어나는 보훈의료 수요에 맞춰 전국 보훈병원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앙보훈병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29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중앙관 4~5층 증축, 진료시설 재배치, 인공신장실과 내시경실 등 외래 진료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보훈병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증·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실과 수술실 등을 확충하고 응급실

에 음압격리실과 심폐소생실을 추가 설치한 데 이어 심혈관센터도 새롭게 구축한다. 대구·경북 보훈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오는 9월 완공된다. 195억 원이 투입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현재 서울·부산·광주·대전보훈병원에 이은 다섯 번째 재활센터다. 치료와 재활을 연계한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화된 대구보훈병원의 서unk동을 재건축해 진료공간과 함께 병상 수를 기존 88개에서 110개로 늘리고 주차장도 추가 설치한다. 보훈부는 기반시설과 함께 보훈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보훈병원 간 진료 정보 공유를 통한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밀 의료서비스 제공

에 힘쓴다. 또한 보훈병원 업무 표준화 등을 위한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경우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고품질의 국가공공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도 올해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100곳 이상을 확대해 왔는데, 올해도 지난 1월 기준 70곳의 위탁병원을 전국 시군구 평균 4곳인 91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안과, 치과 등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위탁병원 진료과목 다양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은기자

대전하나시티즌 ‘차세대 측면 수비수’ 박진성 영입



대전하나시티즌이 전북현대에서 측면 수비수 박진성<사진>을 완전 이적으로 영입했다.

전북현대 산하 U-15(금산중), U-18(영성고) 출신 박진성은 U-16~U-19에 연방별 대표를 꾸준히 거치며 2021년 전북에 입단했다. 데뷔 첫 시즌, 김진수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며 11경기에 출전해 진도유망한 풀백으로서 가치를 증명했다. 2022년까지 전북에서 K리그 통산 23경기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경기에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다. 2023년에는 K리그2 충북청주FC로 임대 이적해 기량을 만개시켰다. 청주의 3백 전술의 핵심인 왼쪽 윙백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으며 26경기에 출전하여 2도움을 기록했다. 박진성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기동력과 탁월한 크로스 능력이 강점으로 왼쪽 사이드 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 전술 운영에 유연성을 더해 줄 선수로 평가받는다. 박진성은 “타 팀으로 이적은 처음이다 보니 마음가짐이 더욱 남다르다.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도전자의 자세로 임하겠다. 전지훈련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투지 있는 모습으로 박진성 이름을 대전 팬 여러분들께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전은 오는 10일 베트남 하노이로 2차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 2024 시즌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한다. 김정환기자

중기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뀌야”

중기중앙회, 중기 730개사 대상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1월 16일~12월 18일까지 중소기업 7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애로사항, 환경업무 담당 인력 현황, 규제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 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 (45.2%는 의

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29.3%는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직책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담당자 없음 57.7%, 겸직자만 있음 27.1%)고 답했다. 환경업무 담당 직책 또는 인력을 갖춘 기업(309개사)의 89.3%는 ‘환경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으나, 자격증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대부분(83.8%)이었다. 한편, 조사업체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0개사)의 37.3%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 정도가 높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차 금속(72.7%) ▲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등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67.3%) ▲폐기물·자원순환(46.0%) ▲폐수(3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관련(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꼽혔다. 양천회 중소기업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병배기자



임산물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산림청(청장 남상현)은 세계 무역기구(WTO)협정에 의해 수출기업에 지원해 주던 수출물류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우리 임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10억 원),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3.6억 원)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수출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박람회 시설 사업(10억 원)은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조정된다.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은 기업이 지원 한도 내에서 상품개발, 수입상바이어 초청, 해외홍보 등 수출 프로모션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총 1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임산물의 품질관리, 안정적 생산공급, 해외홍보 등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구성해 지원한다. 올해 수출통합조직 지원 대상은 밤, 감 등 2개 품목으로, 향후 2030년까지 품목을 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황도윤 소방교,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기증



대전동부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 황도윤<사진> 소방교가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대전동부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 황도윤<사진> 소방교가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신청한 후 8년이 지난 2023년 10월에 유전자 일치하는 수혜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황도윤 소방교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건강 진단, 조혈모세포 촉진제 주사, 입원 및 조혈모세포 채집 등을 거쳐 이뤄졌다. 황도윤 소방교는 군 복무 시절 헌혈에 참여했다가 백혈병 환자를 위해 기증자의 피를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알게 됐다.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은 2만분의 1로 수혜자를 평생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혜자를 찾아 기증이 이뤄지게 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신청했다고 전했다. 황도윤 소방교는 “기증자를 기다리는 수혜자에 비해 기증 신청자 수가 적다고 한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기증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며 “이번에 기증받은 환자들의 완치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대전여성계 신년교례회 개최 대전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영미)가 주관하는 2024년 대전여성계 신년교례회가 9일 14개 여성단체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구계룡스파텔 태극홀에서 개최됐다.



박희조 동구청장, LA비상관리센터 시찰... 선진 재난 대응 체계 학습 2024년 CES 참석을 위해 공무 국의 출장길에 오른 박희조 동구청장이 8일 환승을 위해 잠시 방문한 LA지역에서, LA비상관리센터 시찰을 하며 선진 재난 대응 체계를 학습했다. 특히, 재난 발생 1시간 만에 모든 대처 행동을 가능케 하는 RYLAND이라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동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했다.



충남서부향노년동조합,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 충남 보령시는 충남서부향노년동조합(위원장 이영우)이 9일 시장실에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당진(주동서)기공, 도내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기 전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문은수)는 지난 5일,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서기공(대표 강동우)을 찾아 '솜씨가 바쁜 기업' 513호로 선정하고 명패 전달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전대 지방대학활성화사업 '특성화우수 인재 양성 인턴십 적용형' 교육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지방대학활성화사업팀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30주년 기념관 하나컨벤션홀에서 재학생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대학활성화사업 특성화 우수인재 양성 인턴십 적용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폭설 대비 비상대응체계 점검 충남소방본부는 9~10일 충남서해안을 시작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청 작전회의실에서 권혁민 소방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대전대 이진석·손창규 교수팀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Journal of Translational Medicine 게재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 배경은 만성 피로증후군(ME/CFS) 환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 정도로 알려진 데에 반해 그 병인을 의학적으로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의 과대학·대전한방병원 이진석·손창규 교수팀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이 너무 활성화되면 난치 질환인 만성 피로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규명한 논문이 국제저명학술지 Journal of Translational Medicine (영향력 지수, IF - 8.448)에 2023년 12월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설명할 수 없으며, 심각한 중추 피로를 중심으로 여러 뇌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뇌 신경계 복합 질환인. 심지어 환자의 4분의 1은 야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도 불구하고, 아직 공인된 치료법이 없으며 병의 원인조차 불명확한 실정임. 특히, 이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기초연구가 매우 부족할 상황이기, 임상 문제해결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복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우리 뇌 전체를 순환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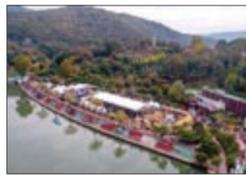
인지, 감정, 수면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뇌 신경전달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의 저하는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반대로, 뇌 속 세로토닌 체계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도 병적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만성 피로증후군 환자를 뇌 영상을 이용한 일부 연구에서 이러한 가설을 제시했다.

대전대 연구팀은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고자 실험용 설치류 모델을 활용하여, 1) 화학적으로 세로토닌의 활성을 유도나 억제하고, 또한 비가역적 유전자 조절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였고, '뇌 변연계의 세로토닌 과활성 → 내분비 및 자율신경계 반응 이상 → 극도의 피로를 포함하는 기능장애'와 같은 만성 피로증후군 증상이 발생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함. 종합적으로, 뇌 세로토닌의 비이상적 과활성이 만성 피로증후군의 유력한 병태생리 기전일 수 있음을 밝히고, 향후 이를 활용한 치료법과 약물 개발의 전략을 제안했다.

대전대학교 동서생명과학연구소의 이진석 교수와 대전한방병원 손창규 교수팀은 '이번 연구는 만성 피로증후군과 임상 증상이 일부 유사한 우울증 및 섬유근육통에서는 뇌의 세로토닌이 부족하나, 두 질환과는 반대로 대비되는 병태생리 특성을 실험적으로 처음 증명하였다. 더욱더 임상적 의미가 크다. 향후 이를 임상적으로도 더욱 검증하고 발전시켜 만성 피로증후군 문제 해결에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고 연구소감을 발표했다.

김정환기자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제12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환)는 9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예술역사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전국 유일 '효'와 '뿌리'를 주제로 하여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전통 있는 축제로서, 제12회, 제13회에 이어 2023년 제14회 축제까지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월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충남과학교육원, JB주식회사와 '생태환경교육' 업무 협약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원장 김병갑)은 JB주식회사와 9일, JB주식회사 비전스페이스에서 생태환경교육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교육청 2030

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JB주식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과학교육원은 '별종위기 및 기후위기 식물 동산 조성' 및 '미션나무를 비롯한 15종의 기후위기 식물 종 보급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발전을 함께 이끌기로 했다.

김병갑 원장은 "학생 참여형 기후위기 식물보급 사업과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국립한밭대, 대학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워크숍 개최

부서별 2023년도 성과점검 및 2024년도 추진계획 공유



계획과 총장공약사항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 부서별 2023년 성과 점검과 2024년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주요성과로는 2023년(하반기) 대학기 평가인정 평가 결과 '인중' 획득,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이 있었고, 2024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 자유전공학부 연구 및 지원 등이 있었다. 2024년 추진계획 중에는 세종공공캠퍼스 개교를 기존 3월에서 9월로 변경하여 추진한다는 내용

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신입생들이 입학 초기 본교 캠퍼스 생활을 영위하면서 대학생활에 적응을 돕고, 이후에 타 대학과 함께 교류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개교 연기를 요청했으며, 개교준비를 철저히 하여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용준 총장은 "지난 한 해 동안의 각 부서별 성과와 2024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주요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농협은행 태안군지부, 장학금 기탁

지역 학생들의 학업 증진 위해 2천만 원 기탁

농협은행 태안군지부(지부장 윤희철)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태안군에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농협은행 태안군지부는 지난 9일 오전 군청 군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윤희철 지부장, 주해운 태안군청출장소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장학금 2천만 원을 태안군 사랑장학회에 기탁했다.

태안=김정환기자



'두발로' 세종시 어려운 이웃을 품다

2018년 창단 세종시 걷기 동호회... 걷기프로젝트로 162만원 모아

세종시의길 두발로(대장 정상영) 걷기 동호회가 2023년 한해 동안 세종시 곳곳을 걸으며 세종의 명소를 알리고 걷기 앱을 통해 모은 성금 162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회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착한 발걸음 두발로 프로젝트'를 전개하면서 회원들은 자율적으로 1천 걸음 당 100원씩 모아 기부해 이어오고 있다. 두발로는 벌써 2021년 150만원, 2022년 152만원, 2023년 162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은 세종시 곳곳을 누비면서 활영한 세종시의 아름다운 풍경사진이 세종을 알리고 사진공모전 수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송병배 기자

공주시 고마축량, 공주생명과학고에 장학금 300만원 기부



공주시 소재의 토목 설계 전문 업체인 고마축량의 공동 대표 백윤석 소장과 홍정표 소장, 그리고 이성규 사원이 뜻을 모아 지난 8일 실시된 제86회 공주생명과학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농업토목과 3학년 전원에게 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고마축량은 2023학년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김용정)의 산업현장교수로 위촉되어 전(全) 직원이 바쁜 업무를 뒤로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공주 축량업체 중 유일하게 드론을 활용한 측량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공주생명과학고 학생들이 드론 측량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3D 매핑, 토목 설계 등 다양한 고급 실무 능력 교육을 실시했다. 이처럼 1년간 매우 수업을 진행하며 받은 감사비 전액을 토목 분야의 후배들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교육을 받았던 학생 3명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공주=정성법기자

칼럼

젊은이들을 위한 새해의 희망



이재현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헌혈홍보위원

서기406년 12월선달 그믐달 밤 유럽에는 큰 환파가 덮었고 독일의 마인츠시로 불리는 라인강이 얼어 붙어 길이 되었다. 이곳을 약 1만 5천의 민족 즉 게르만인 군대와 여자, 아이들,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하얀 달빛에 번쩍이는 얼음길을 가로질러 로마제국의 속주 갈리아로 쳐들어 갔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지않는 군대

의 저항을 거의 받지않고 점령하였고 고함인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떠나 수백년을 방황한 끝에 유럽의 중심 지중해에 도착하여 중세유럽을 열어가게 된다. 바로 앵글로 색슨인 부르군트인, 프랑크인, 고트인, 반달인으로 현대의 유럽국가가 된다.

그 결과 약 2천만을 넘은 갈리아인을 지배하게 되고 로마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그때의 로마는 활력을 잃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햇빛이 부족했으며 광물과 보석의 생산이 줄고 전담에는 능부기 없었고 바다에는 어부가 없었으며 군대에는 군인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는 한 조각의 정의도 없었으며 상업은 쇠퇴하고 정치와 사회는 규율이 결여되어 있었다.

나라와 민족의 별망이 부패와 사실이 원인이 된 것이다. 반면에 정복자 게르만은 광대하게 버려진 농지를 개간하여 수확을 거두고 그들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였으며 우월한 로마의 문명을 유지

발전시켜나가 오늘날의 유럽을 탄생시켰다.

그 특징은 개인의 자유, 경제의 발전, 과학의 진보,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이었다. 우리사회의 나이갈 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통해야 한다. 나의 삶을 뒤돌아 보는것도 내 역사를 뒤돌아 보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정하며 실천해나가면서 부강한나라를위한 내가 된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어렵지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희망을 보아야 한다. 지금도 길을 내고 담을 허물며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연구하며 열심히 일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세금을 내어 나라살림에 힘을 보태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사람들은 애국자로 대우받아야하고 존경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가 되

어야 한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국민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며 젊은이들이 주인인 나라, 그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해진다.

새해의 희망은 젊은이들에게 걸어본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성을 찾아 지혜롭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그들이 직장을 찾고 결혼을 하고 후손들을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모두가 힘을합쳐 인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바란다.

정치와 학계, 언론계가 합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권력만을 위해 지금처럼 상대를 편취하고 상대를 질하며 예의를 상실한 부도덕함을 털어내고 바람직한예의와 건전한 대안의 제시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정당당한 정치와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새해에도 현충은 수많은 애국시민들로 정상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0원의 현충이 부족하다고 한다. 현충선진국 대한민국도 새해의 희망이다.

사설

인구 감소보다 걱정스러운 국가 총부채

유력한 인구소멸 1호 국가 후보가 한국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결코 먼 미래의 확률적 사건이 아니다.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준 0.78명으로 단연 OECD 최저치다. 이것도 매년 자료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신기록을 경신한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5천100만 명 이상인 현 인구는 2072년 3천600만 명대로 쪼그라 들고, 중간연령도 60세를 넘는 노인국가로 탈바꿈한다. 당연히 국내총생산(GDP)은 물론 교육·복지·국방·안보 등 국가 운영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칼럼에서 우리나라가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유럽보다 빠르게 붕괴하리라는 전망을 냈다. 물론 인류 문명을 돌아보면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듯하다. GDP나 교육·복지는 이민정책을 통해, 국방·안보는 첨단 군사기술(로봇 개발, 무기 개선)이나 남북통일 등 새로운 전환점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국력을 키워 가는가'다. 이를 위해선 높은 수준의 경제력과 기술력, 제도, 문화가 견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타깝게도 이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국가 총부채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가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추정된다.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 탓이 크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년 전인 2017년(40.1%)보다 142%p 증가한 54.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 비율은 161%p(92.0%→108.1%), 기업부채 비율은 266%p(147.0%→173.6%) 증가했다.

관성의 법칙은 여전히 작동한다. OECD 중 우리만 유일하게 지난 1년간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이 확대됐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력보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금융 부실은 물론 투자 위축, 소비 침체로 국가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사회 불안정이 가속화된다. 이를 막는 게 재정역할인데, 이미지도 급증한 정부부채로 집행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국가 총부채가 국력을 쪼뻛는 상황이 됐다. 50년 후에도 이곳을 살아갈 3천600만 국민들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무전공 정원 확대 방안 내놓은 교육부

최근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20% 이상, 2026년에는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모집하리라고 밝혔다. 국립대의 경우에는 25%, 30%로 기준점이 더 높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에서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힘들 정도로 재정의 위기를 겪는 대학들이 교육부의 방침을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에 자유전공학부 명칭으로 모집하고 있는 무전공 입학 정원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2025년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다.

입시에 관련된 어떤 말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다음 입시에 이를 반영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길러온 학생 배제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게다가 무전공 혹은 자유전공 모집은 입시제도 역사 속에서 시행되었다가 사라지고 다시 시행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전공과목이 아닌 계열별로 모집하여 2학년이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했던 입시제도도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대학생활 1년을 통해 전공을 결정하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대부분 취업에 유리한 인기 학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인문학이나 기초과학 분야에 지원자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결국 학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게다가 전공자가 몰린 학과에서도 정원이 늘어나 교육부의 지원이 커지는 것은 좋지만 인원이 많아 제대로 된 교육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교수들의 솔직한 토로다. 학과 지원에 있어서 부의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학문의 편중 현상이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무전공으로 대학 1년을 보내면서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체험할 수 있고 신중론 고려를 통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전공에 쏟을 시간을 1년 허비할 뿐이란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학의 혁신을 위해 대입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적용하기까지의 시간이다. 입시제도에 관한 중대한 변화를 다음 입시에 바로 적용하는 방침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현재 교육부의 고지를 받아 대학들조차 이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안만 커지고 있어 가급적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군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군민의 복지 향상·보장 증진 총력

예산군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2024년 새해를 맞아 군민의 복지 향상 및 보장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사회 보장 급여법 제41조를 근거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 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학계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보호 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되는 단체다.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는 '함께하는 공감복지! 활짝 웃는 행복예산!'을 목표로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민간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과 총 170여명의 대표 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및 민간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읍면 단위 네트워크 조직 구성 등 기능을 맡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복지 아카데미 운영 △사회 복지 박람회 △주민주도 읍면 마을복지계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치와 연계, 통합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보와 자원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군부 유일 1위인 2022년 지역 사회 보장계획 시행 결과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국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우수, 충청남도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복지 욕구의 지역 자원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민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참여 복지 실현을 통한 지역 내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재화 기자

시의 향기



고안나 시인의 '詩넷물'

백두산

자는 듯 죽은 듯 태연하게 누워 한 세상 꿈이라도 꾸시는가

낮달 하나, 난파선처럼 떠다니는 하늘 바다 위 구름송이 따로 또 같이 물려다니는데

정녕, 들을 말 없는 듯

입 닫고 귀 닫은 채 천년 꿈틀거릴 때마다 속물음으로 만년

가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 뒤의 일은 아무도 모른 채 갇힌 세월 속에 애간장만 녹이십니까

시작 노트

백두산은 조 종 국경에 있는 화산이다. 중국에서는 장백산, 한민족에게는 민족의 영산으로 추앙되었으며 1년 중 8개월이 눈으로 덮여 있어 흰머리 산이라는 뜻으로 백두산이라 불린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르는 우리의 백두대간, 온통 금강다가 깔린 듯한 백두산에 올라 감격에 겨워 전율을 느낀 적이 있었다. 우리의 것을 우리 것이라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당한 현실 앞에 허탈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강한 이 자부심은 뭐란 말인가...?

시의 향기



백성일 시인의 '바람이었다'

바람이었다

하늘과 땅은 흰 구름 속으로 숨어들고 함박눈이 내린다.

마음은 소년이 되어 몸으로 세상을 끌고 다니며 흘린 낙엽에 생각이 멈추고

끌고 다니는 바람이었다

단풍이 낙엽 되고 마음은 세월을 먹어 버리고 푸른 잎의 시절 찾아 헤맨다.

내가 낙엽인줄 나만 모른 채 함박눈은 소년의 얼굴을 적시며 이리저리 어제를 끌고 다니는 바람이었다

시작 노트

바람이란 실체가 없다. 간접적인 물체로 인하여 본성을 나타낸다. 문득 화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낙엽이 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혼자만이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바람이 젊은 시절의 추억을 실어왔다. 화자가 바로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전의면, 토사유실 위험 지반 취약지 사전 점검

일시 기온상승 지반 약화 우려... 동교리 213-25 등 6곳 현장점검

전의면이 일시적 기온상승에 따른 사면붕괴, 토사유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사전 예찰했다.

이번 사전 예찰지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토사유실 및 사면붕괴에 따라 임시대피시설로 대피 조처가 내려졌던 동교리 213-25 등 6곳이다. 1-2월은 일시적 기온상승으로 겨울철 굳어 있던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면붕괴·토사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지는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사전 예찰에서는 지반점검은 물론 거주자에게 집중호우시 긴급대피명령 등 처리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긴급대피명령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송재숙 전의면장은 "재난 안전사고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어 항상 먼저 살펴보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재해취약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예찰해 안전한 전의면을 만들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즈니스

발행·편집인 김형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김우영·김성식·김종복
전화번호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 5000원

등록번호 : 대전가 00017 인쇄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투초대석> 정철 (사)대한가수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장

“지역 가수 권익 향상과 위상 정립 위해 꾸준히 노력할 터”



(사)대한가수협회대전광역시지회 회장 정철

대전지역에서 노래를 벗삼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과 고향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가수가 있다. (사)대한가수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정철 지회장이 그 주인공. 정 지회장은 바쁜 일과속에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의 소외된 시설 등을 찾아 노래공연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리고 최근엔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해오고 있다. 대전투데이는 정철 지회장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2024년 갑진년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4년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은 하늘을 승천하는 신비한 존재로 큰희망과 행운의 상징입니다. 진취적이고 높은 목표를 향해 성취하시고 끊임없이 도전하

는 모든 순간이 희망이 되어 찬란한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저희 대한가수협회는 어떠한 단체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면서 서울지부의 모체로 시도 단체로 전국의 규모를 갖고 있으며 친목도모와 권익을 보장받아 각종 예술 문화를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대전지회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많은 회원과 실력있는 가수와 작곡가 다양한 악기로 재능을 가진 회원으로 이루어지며 매월 90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떤행사도 성공적으로 문화예술에 기여할수 있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에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전지역의 각5개 구청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 예술 보건증진을 위한 각 구의 공동체 활성화의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의 전회원이 동참하여 기본살의 기초가 되었다는 신념으로 심시일반 후원의 성금을 모아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회장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태어난 곳이 청양의 산골에 자라났지만 초등학교때의 설문조사를 하면 모두가 선생님이라고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저는 늘 마음 한편엔 가수라고 되뇌었습니다. 대전에서 사업의 병행하면서 꿈이 현실로 좀더 다가갈수 있

는 방법을 찾다가 일품이라는 단체를 60여명으로 구성되어 회장직을 맡으면서어디든 행사가 있다면 서슴치 않고 버스킹 공연과 각종봉사활동을 오래동안 하였습니다. 먼저 가수의 선배로 활동하던 지인소개로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를 정식 첫 앨범을 갖고 가수증을 받고 가수로서 꿈에 더욱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입학하여보니 40여명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좀더 대전지회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회원을 발굴하여 현재 150여명으로 전국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단합과 봉사를 가장 잘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회에서는 지역의 크고 작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는 연예협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권익향상과 위상 정립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 끝에 독립되어 지위가 향상되면서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0시축제에서 행사를 대전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오케스트라 초청과 대전지회의 실력있는 가수의 객찬 무대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의 어르신 위안잔치를 여러차례 봉사의 중구 어르신 일자리창출의 축하무대로 도안동 숲공원에서 무대위를 잇은 채 고추 모종 참외 모종 상추 모종을 후원받아무료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가을에는 짜장면을 직접만들어 어르신께 위안 하였으며 중구청의 홀로계신 어르신 쌀 기부 200포를 동구 대동에서는 떡국대접하면서 공연으로 위안잔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연말 대한가수협회 송년회에서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고 힘든 어린이를 돕고자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장학금 전달식도 하고보니 정말 보람차고 뜻깊은2023년의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저희 대한가수협회는 어렵고 힘든 삶을 즐기고 행복을 추구할수있는 바탕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것입니다.

▲지회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대한가수협회의 대전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협회가 독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않아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의 가수단체가 대통합되는 그날까지 주도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모범적인단체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이정복기자

